

정 소 우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영작문에서의 오류 분석

200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서 고 은

영작문에서의 오류 분석

정 소 우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서 고 은

인 준 서

서고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 문 개 요

학습자들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많은 오류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당연한 현상이며 이러한 오류는 학습자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교사의 수업 계획과 교재 작성의 자료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들이 영작한 것을 토대로 학습자 오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을 보면, 1장인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2장에서는 이론적 근거로 대조분석과 오류분석에 대해 소개하였다. 3장에서는 실태조사, 문장 전체의 영작, 부분영작인 빈칸 채우기 문제의 실험결과를 분석하고 6차 교육과정에서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였으며, 4장인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실험결과를 요약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영어 오류 분석을 위해 중학교 3학년 30명과 고등학교 1학년 22명을 대상으로 3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게 했다. 첫 번째는 객관식형태의 실태조사였으며 두 번째는 우리말로 제시된 번역을 보고 문장 전체를 영어로 옮기는 영작문제였다. 세 번째는 문법항목별로 구분된 빈칸을 채우는 문제였다. 각 유형의 통계를 내어 분석하였으며 영작문제와 빈칸 문제를 통합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

분석결과 문법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전치사와 동사류 부분에서의 오류가 두드러졌으며 오류율이 높은 순서대로 쓰면 전치사, 동명사, 동사, to부정사, 관사, 어순, 어휘와 접속사, 의문사, 부사, 소유격, 명사, 첨가, 형용사의 순이었다. 원인별로 보았을 때는 목표어의 규칙 확대로 인한 오류수가 1796개로 66%,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수가 909개로 33%로 목표어의 규칙 확대로 인한 오류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6차 교육과정에서의 연구결과와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모두 동사에서의 오류율이 높다는 점에

서는 일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명사와 형용사의 오류율이 낮게 나온 반면 6차 교육과정에서의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지 않았다. 이는 통해 7차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6차 교육과정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동사의 사용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명사나 형용사에 대한 이해는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목표어로 인한 오류율이 모국어로 인한 오류율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는 6차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7차 교육과정의 학생들도 모국어의 간섭보다는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해 영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 보았을 때, 의사소통 기능도 중요하지만 문법과 쓰기 수업 또한 실제 수업에서는 필요한 요소임을 인지하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4가지 기능이 균형 있게 발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도가 요구되는 바이다.

목 차

논문개요

| | |
|---------------------------------------|-----------|
| 1. 서론 | 1 |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1. 2. 연구내용 및 제한점 | 2 |
| 2. 이론적 연구 | 4 |
| 2. 1. 대조 분석 이론 | 4 |
| 2. 2. 오류 분석 이론 | 6 |
| 2. 2. 1. 오류의 정의 | 6 |
| 2. 2. 2. 오류의 원인 및 분류 | 7 |
| 2. 3. 선행 연구 | 8 |
| 3. 오류 분석 및 결과 | 11 |
| 3. 1. 실태 조사 | 11 |
| 3. 1. 1. 실태조사의 분석방법과 사용한 문항 | 11 |
| 3. 1. 2. 실태조사 결과 | 12 |
| 3. 2. 영작문제에 나타난 오류 분석 | 15 |
| 3. 2. 1. 영작문제의 오류분석 방법과 사용한 문항 | 15 |
| 3. 2. 2. 각 문항별 오류 분석 | 18 |
| 3. 2. 3. 문법적 오류 분석 | 59 |
| 3. 2. 4. 원인별 오류 분석 | 61 |
| 3. 3. 빈칸문제에 나타난 오류 분석 | 66 |
| 3. 3. 1. 빈칸문제의 오류 분석 방법과 사용한 문항 | 66 |

| | |
|--------------------------------------|------------|
| 3. 3. 2. 각 문항별 오류 분석 | 69 |
| 3. 3. 3. 문법적 오류 분석 | 105 |
| 3. 3. 4. 원인별 오류 분석 | 107 |
| 3. 4. 오류 분석 요약 및 이전 연구와의 비교 | 110 |
| 3. 4. 1. 영작문제와 빈칸문제의 문법적 오류 분석 | 110 |
| 3. 4. 2. 영작문제와 빈칸문제의 원인별 오류 분석 | 112 |
| 3. 4. 3. 이전 연구와의 비교 | 114 |
| 4. 결론 | 116 |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언어를 습득할 때는 언어의 4가지 기능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모두를 균형 있게 학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영어교육으로 인하여 문법과 같은 정확성에 있어서의 능력을 간과할 수 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평가하지 않는 쓰기 영역의 경우 교사나 학습자 모두 소홀하기 쉬운 영역이다. TOEIC의 경우 2006년 12월부터 writing과 speaking을 추가하여 시험을 실시한다고 TOEIC을 주관하는 ETS가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기존의 듣기, 읽기 평가 방식에 쓰기와 말하기 평가 방식을 추가한 것으로 쓰기에서의 비중이 전보다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도 쓰기 영역의 지도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지하여 언어의 4가지 기능의 균형에 힘써야 할 때다. 이에 본 연구는 효율적인 영작 지도가 가능하도록 학습자들이 배우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학습자 오류에 대해 연구하였다. 학습자들은 배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오류를 만들어내며 이러한 오류는 학습자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교사의 수업 계획과 교재 작성의 자료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영작문 오류 분석을 위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전체문장의 영작과 일부분의 영작을 하게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오류를 문항별, 문법항목별, 원인별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문제에 나타나는 오류를 연구한다.

둘째,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두 집단을 비교하여 분석하여 두 집단에서의 오류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본다.

셋째, 6차 교육과정에서의 연구들과 7차 교육과정에 속하는 본 연구를 비교한다.

1.2. 연구내용 및 제한점

본 연구는 1장인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장에서는 이론적 근거로 대조분석과 오류분석에 대해 소개하였다. 3장에서는 실태조사, 문장 전체의 영작, 부분영작인 빈칸 채우기 문제의 실험결과를 분석하고 6차 교육과정에서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였다. 4장인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실험결과를 요약 정리하였으며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3곳의 학원에서의 중3과 고1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 간의 편차를 고려하지 않으며 모든 중3과 고1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오류의 원인은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분류체계인 언어간 전이와 언어내 전이로만 분석하여 학습태도, 학습동기, 교사와 학생의 상호관계와 같은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셋째, 오류의 문법 항목별 분류 및 원인 분류 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넷째, 문제지에 힌트로 제시된 단어로 인하여 그 부분에 해당되는 문법항목의 오류율이 낮게 나올 수 있다.

다섯째, 실험대상인 중3과 고1의 학력수준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두 집단의 단순 비교에 제한이 있다.

II. 이론적 연구

오류에 관해서 학습자의 언어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파악하여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이론으로 대조분석이론과 오류분석이론을 들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오류를 설명하는 이 두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조분석이론은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체계의 차이점이 많아 1언어는 2언어인 영어의 언어체계를 습득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보고 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2언어를 학습할 때의 어려움을 예상하고자 한 이론이다. 이와는 다르게 오류분석 이론은 모국어의 전이현상으로 발생하는 오류 뿐 아니라 다른 원인들도 고려하며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원인을 설명하는데 목표가 있으며 학습자가 어떠한 학습전략을 사용하는지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2언어 학습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2.1. 대조 분석 이론

대조분석이론은 1940년대와 50년대의 행동주의 심리학과 구조주의 언어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체계의 차이점이 많아 모국어인 1언어는 2언어인 영어의 언어체계를 습득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보고 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2언어를 학습할 때의 어려움을 예상하고자 한 이론이다. 모국어와 외국어 체계 사이에 차이가 크면 모국어의 간섭이 방해가 되지만 만약 두 언어가 유사하면 긍정적으로 전이되어 간섭이 예견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은 두 언어사이의 차이점을 극복하는 것을 중요시했다.

Fries(1945)는 가장 효과적인 학습 자료는 학습자의 모국어와 비교하여 과학적인 근거로 기술된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The most efficient materials are those that are based upon a scientific description of the language to be learned, carefully compared with a parallel description of the native language of the learner. (Fries 1945 : 9)

Lado(1957) 또한 Fries와 마찬가지로 대조분석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Individuals tend to transfer the forms and meaning and the distribution of forms and meanings of their native language and culture to the foreign language and culture - both productively when attempting to speak the language and to act in the culture and respectively when attempting to grasp and understand the language and the culture as practised by natives. (Lado 1957, in Lasen-Freeman & Long 1991 : 52-53)

그러나 모국어와 외국어간에 차이가 크다고 해서 항상 간섭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언어는 매우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비교 대조하는 것은 어렵다. 모국어가 꼭 간섭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언어학습 과정 중 오류의 근원을 모국어의 영향으로만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대조분석 이론은 언어 전이로 인한 오류를 기술한 점 등에서 언어학적인 면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2.2. 오류 분석 이론

196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대조 분석 가설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언어 학습에서 학습자의 창의적 기여나 무한한 언어 체계의 습득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오류분석이론이 나왔는데 오류 분석 이론은 모국어의 전이현상으로 발생하는 오류 뿐 아니라 다른 원인들도 고려하며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원인을 설명하는데 목표가 있으며 학습자가 어떠한 학습전략을 사용하는지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2언어 학습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오류 분석 이론에 의하면 2언어 학습은 단순히 모국어의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한다고 가능하지 않으며 단순히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을 이해하는 창조적 과정이며 외국어 학습 시 나타나는 다양한 오류들을 관찰하여 이를 활용해 나가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2.2.1. 오류의 정의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수(mistake)와 오류(error)를 우선 구별해야 한다. Brown(2000)에 의하면 실수는 이미 알려진 체계를 정확하게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구잡이 추측(random guess)이나 실언(slip of the tongue)에서 오는 언어수행상의 오류(performance error)이다. 반면 오류는 모국어 화자의 성인 문법으로부터 뚜렷이 이탈된 것으로, 그것은 학습자의 중간 언어 능력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Corder(1967)에 의하면 실수(mistake)는 언어수행상(linguistic performance)

의 잘못으로 범하는 비체계적인 잘못이며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다시 되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오류(error)는 언어지식의 부족으로 학습자가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범하는 잘못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오류의 정의가 있으며 이를 종합해보면 오류는 실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실수는 성격상 비체계적이지만 오류는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2.2. 오류의 원인 및 분류

오류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 위주로 알아보겠다.

Richards(1974)는 언어 간섭 이외의 오류의 요인을 그 원인 규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칙의 과잉일반화(overgeneralization), 규칙 제한의 무시(ignorance of rule restrictions), 규칙의 불완전한 적용(incomplete application of rules), 그릇된 가설의 설정(false concepts hypothesized)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계순(1977)은 두 가지 오류, 모국어의 간섭에서 생기는 언어간 장애와 목표어의 복잡성에서 유발되는 언어내 장애로 구분하고 후자를 다시 목표어 자체의 규칙을 과잉 적용하여 생기는 오류, 효과적인 교수법과 학습자의 태도에서 발생하는 오류, 목표어 규칙의 복잡성으로 인해 목표어 규칙의 내재화가 되지 않아 일어나는 오류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류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와 목표어의 규칙 확대로 인한 오류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i) 언어간 전이(interlingual transfer)란 모국어의 간섭현상으로 인해 출현하는 오류를 일컫는다. 학습자가 외국어를 배우는 초기 단계에서는 외국어의 체계가 익숙하지 않으므로 모국어로부터의 전이 현상이 많이 생기게 된다. 영어를 한국어식으로 하려는 경향에서 오는 영어 학습상의 어려움은 모두 모국어의 방해로 볼 수 있다. Littlewood(1984)는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어 학습자나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불어 학습자는 모국어와 목표어의 기본 어순과 주요 문법 범주에 직접적인 유사성이 있으므로 다른 학습자들 보다 비교적 쉽게 목표어를 학습할 수 있다고 하였다.

(ii) 언어내 전이(intralingual transfer)는 목표어 자체 내에서 오는 간섭현상으로 출현된 오류로 과잉일반화(overgeneralization)가 전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학습 목표어의 규칙들을 학습자들이 혼용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학습자가 이미 습득한 2언어 규칙들을 널리 확대해서 적용시키거나 적용빈도가 적은 규칙들을 삭제함으로써 규칙을 일반화하는 것을 말한다.

2.3. 선행연구

우리나라 학생들의 영어 글쓰기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영어교육과 더불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 글쓰기에서 보이는 오류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져 왔다.

박병제(1996)는 ‘오류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영작문 지도방법 고찰’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품사별 오류비율의 순위를 보면 전치사, 동사, 명사, 어순, 시제, 구조, 어휘, 형용사, 대명사, 의미, 관사, 부사였으며 원인별 비교에서의 순위는 규칙확대, 언어전이, 축소, 언어전이와 규칙확대가 같이 있는 것, 언어전이와 축소가 같이 있는 것, 원인불명의 순이었다.

정진래(1993)는 ‘영작문 오류 분석’에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품사별로 보면 첫째, 형태상의 오류에서는 복수어미의 생략이 23%, 부사구의 오류가 3%, 본동사의 생략이 19%로 나왔으며 모두 45%였다. 두 번째, 관사 상의 오류는 부정관사의 생략이 15%, 정관사의 생략이 11%였으며 모두 26%였다. 세 번째, 어순상의 오류에서는 부사의 위치가 3%, 의문문의 어순이 2%, 의문대명사의 위치가 1%, 형용사의 위치가 1%로 모두 7%였다. 네 번째, 통사적 오류를 보면 주어의 생략이 3%, yes/no 사용상의 오류가 6%로 모두 9%였다. 다섯 번째 구조상의 오류는 한국어의 영향이 13%였다. 원인별로 보면 언어전이의 오류수가 3593개로 33%였으며 규칙확대는 6507개로 66%를 차지하여 규칙확대의 비율이 높았다.

백왕연(1994)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작문상의 오류에 관한 연구’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오류의 문법 범주별 분석을 보면 명사 30.7%, 대명사 34%, 형용사 31%, 동사 33.7%, 준동사 65%, 부사 28%, 시제 30%, 태 31%, 서법 36.5%, 수의 일치 7%, 관계대명사 18%, 현재완료 26%, 전치사 65%, 관사 14%, 비교 16%, 접속사 45%, 소유격 39%, 어순 49%, 어휘 33%, yes/no대답 44%로 나타났다. 오류의 원인별 분석을 보면 모국어 전이가 30.51%, 목표어의 내부 전이가 69.9%였다.

김미정(2001)은 ‘오류 분석을 통한 영어 쓰기 지도’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 총 1642개의 오류 중 동사류의 오류가 703개를 차지하여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사(13.3%), 관사(10.2%), 전치사(9.0%), 명사(8.2%), 구조/어순(6.1%), 대명사(5.4%), 어휘 및 표현(2.9%), 형용사(1.9%) 순으로 나타났다. 오류의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언어간 전이가 35.7%, 언어내 전이가 60.6%, 복합적인 경우가 3.7%로 나타났다.

Ⅲ. 오류 분석 및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인 영어 오류 분석을 위해 서울에 소재한 학원 3곳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실험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중3 학생들은 강북구 미아동과 광진구 중곡동의 학생들로 상위권과 중위권이었으며 고1 학생들은 광진구 중곡동의 대원여고, 대원남고의 학생들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중3 학생은 모두 30명으로 남학생이 14명, 여학생은 16명이었으며, 고 1학생은 모두 22명으로 남학생 13명, 여학생 9명이었다.

본 연구는 실험대상 학생들에게 3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게 했다. 첫 번째는 객관식형태의 실태조사였으며 두 번째는 우리말로 제시된 번역을 보고 문장 전체를 영어로 옮기는 영작문제였다. 세 번째는 문법항목별로 구분된 빈칸을 채우는 문제였다. 각 유형의 통계를 내어 분석하였으며 영작문제와 빈칸 문제를 통합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

3.1. 실태 조사

3.1.1. 실태조사의 분석 방법과 사용한 문항

학생들이 체크해 준 설문지를 토대로 각 문항의 통계를 내어 분석하였으며 소수점은 버리고 계산하였다. 학생들의 영어 교육을 받은 시기, 영어 문법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영어를 배울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답변해 주었는지 알아보았다.

<표1> 실태조사의 문항

| 문항 번호 | 질문 | 보기 |
|----------|--------------------------------------|--|
| 1 | 영어교육을 언제부터 받으셨습니까? | 1) 1세~4세 2) 5세~7세 3) 초 등학교1학년~3학년 4) 초등학 교 4학년~6학년 5)중학교 |
| 2 | 영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영어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하다 3) 필요 없다 4) 전혀 필요 없 다 |
| 3 |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듣기 2) 말하기 3) 읽기 4) 쓰기 5) 듣기, 말하기, 읽기, 쓰 기 모두 |

3.1.2. 실태조사결과

1) 영어교육 받은 시기

<표2> 영어교육 받은 시기

| 문항1 | 중 (30명) | | 고 1 (22명) | |
|------|---------|--------|-----------|--------|
| | 명수 | 백분율(%) | 명수 | 백분율(%) |
| 1~4세 | 1 | 3 | 0 | 0 |
| 5~7세 | 1 | 3 | 0 | 0 |
| 초1~3 | 13 | 43 | 7 | 31 |
| 초4~6 | 14 | 46 | 15 | 68 |
| 중학교 | 1 | 3 | 0 | 0 |

영어를 언제 처음 배웠는지에 대한 문제로 중3과 고1 모두 초등학교 4~6학년 사이에 가장 많이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3과 고1 분포의 다른 점은 중3에서는 1~4세, 5~7세에도 배운 학생이 있는 반면 고1에서는 모두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영어를 배웠다는 사실이다.

2) 영어를 배울 때 영어 문법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표3> 영어를 배울 때 영어 문법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 문항2 | 중 3 (29명) | | 고 1 (22명) | |
|----------|-----------|--------|-----------|--------|
| | 명수 | 백분율(%) | 명수 | 백분율(%) |
| 매우 필요하다 | 3 | 10 | 1 | 4 |
| 필요하다 | 21 | 70 | 13 | 59 |
| 필요 없다 | 6 | 20 | 8 | 36 |
| 전혀 필요 없다 | 0 | 0 | 0 | 0 |

영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영어 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중3의 70%, 고1의 59%가 ‘필요하다’에 답을 적었으며 ‘전혀 필요 없다’는 두 집단 모두 0%가 나와 영어문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많았다.

3) 영어를 배울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

<표4> 영어를 배울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

| 문항3 | 중 3 (30명) | | 고 1 (22명) | |
|-----|-----------|--------|-----------|--------|
| | 명수 | 백분율(%) | 명수 | 백분율(%) |
| 듣기 | 4 | 13 | 7 | 31 |
| 말하기 | 8 | 26 | 0 | 0 |
| 읽기 | 2 | 6 | 4 | 18 |
| 쓰기 | 0 | 0 | 1 | 4 |
| 모두 | 16 | 53 | 10 | 45 |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어디인지 알아보았다. ‘읽기’가 가장 많이 나올 것이라 예상과 달리 중3의 53%, 고1의 45%가 ‘모두’라고 체크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4가지 영역 모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항목은 중3에서는 ‘말하기’였으나 고1에서는 ‘듣기’였다. ‘쓰기’항목을 보면 중3에서는 아무도 체크하지 않았으며 고1에서는 1명만이 답해주어 학생들이 ‘쓰기’에 중점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고1에서는 ‘말하기’ 부분에 아무도 답변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는 중3의 26%가 ‘말하기’라고 답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수능에서 ‘말하기’ 영역을 측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2. 영작 문제에 나타난 오류 분석

3.2.1. 영작문제의 오류 분석 방법과 사용한 문항

우리말로 제시된 번역을 보고 영어로 옮기는 문제로 문제 옆에 힌트를 제시한 문제도 있다. 이는 철자에 의한 오류를 막고 오답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답을 적지 않으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영작 문제의 오답내용은 대표적인 오답 위주로 적었으며 각 문제의 오답률과 문제 안에서의 오류들 가운데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보았고 소수점은 버리고 계산하였다.

사용한 문항은 7차 교육과정의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 High school English 교사용 지도서, Middle school English 교사용 지도서, Grammar in use intermediate, Basic grammar in use, 맨투맨 기본 문법서 등의 내용 중에서 추출한 28개의 문장들이다.

<표5> 영작문제에서 사용한 문항

| | 문항 | 모범답 |
|---|--|---|
| 1 | 그는 야구(baseball)를 좋아해(like). | He likes baseball. |
| 2 | 나는 내년 여름에 하와이(Hawaii)를 방문하길(visit) 희망해(hope). | I hope to visit Hawaii next summer. |
| 3 | 나는 내일까지(tomorrow) 내 리포트(report)를 끝마쳐야 해(finish). | I have to finish my report by tomorrow. |
| 4 | 우체국이 어디인가요? (post office) | Where's the post office? |
| 5 | 그는 항상(always) 학교에(school) 늦게 온다. | He always comes late to school. |

| | | |
|----|--|--|
| 6 | 난 내 자전거를(bike) 어제(yesterday) 잃어버렸어(lose). | I lost my bike yesterday. |
| 7 | 김씨는(Mr.Kim) 남자형제가(brother) 2명이 있어(have). | Mr. Kim has two brothers. |
| 8 | 그는 매일(everyday) 학교로(school) 가(go). | He goes to school everyday. |
| 9 | 우리는 지난주에 그 파티에(party) 초대되지(invite) 않았다. | We weren't invited to the party last week. |
| 10 | 그녀는 사과를(apple) 좋아하니(like)? | Does she like apples? |
| 11 | 너는 프랑스에(France)가본 적 있니? | Have you been to France? |
| 12 | Tom은 지난 일요일(Sunday)에 수영하러(swim) 갔어. | Tom went swimming last Sunday. |
| 13 | 그는 행복해(happy) 보인다(look). | He looks happy. |
| 14 | 어제(yesterday) 햄버거(hamburger)를 얼마나 많이 먹었니(eat)? | How many hamburgers did you eat? |
| 15 | 내가 비닐봉지 가질(have) 수 있겠니(can)? | Can I have a plastic bag? |
| 16 | 그의 엄마는(mother) 부엌에(kitchen) 있다. | His mother is in the kitchen. |
| 17 | 그것은(it) 책상(desk) 위에 있다. | It's on the desk. |
| 18 | 그는 노래를(song) 불렀다(sing). | He sang a song. |
| 19 | 우리는 또 다른 의자가(chair) 필요하다(need). | We need another chair. |
| 20 | 나는 고양이(cat)를 좋아하지(like) 않아. | I don't like cats. |
| 21 | 그는 나에게 저(that) 연필을(pencil) 주었다(give). | He gave me that pencil. |
| 22 | 나 머리(hair) 잘랐어(cut). | I had my hair cut. |

| | | |
|----|---|--|
| 23 | 나는 저번 일요일(Sunday)에 공원 (park)에서 그녀를 보았어(see). | I saw her at the park last Sunday. |
| 24 | 누가(who) 그렇게(that) 말했어(say)? | Who said that? |
| 25 | 우리는 한국에(Korea) 있는 인천 (Incheon)공항에(airport) 도착했어 (arrive). | We arrived at Incheon Airport in Korea. |
| 26 | 우리 엄마(mother)는 훌륭한(good) 요 리사이다. | My mother is a good cook. |
| 27 | 그는 방안으로(room) 들어갔다(enter) | He entered the room. |
| 28 | 손(hand) 닦아라(wash). | Wash your hands. |

3.2.2. 각 문항별 오류 분석

<표6> 영작 문항 1

| 문항 1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23 | 7 | 23% | 8 | 14 | 63% |
| | 그는 야구(baseball)를 좋아해(like). He likes baseball.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He like it baseball. He is like baseball. He like baseball. He is like a baseball. | | | He is like baseball. He like baseball. I like baseball. | | |
| | 명사 | 동사 | | 어순 | | |
| 중3 | 20% | 80% | | 0% | | |
| 고1 | 13% | 86% | | 0% | | |

오답률은 중3이 23%, 고1이 63%였으며 주어인 'he'는 한 학생만 빼고 틀리지 않았으나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지키지 않고 'likes' 대신 'like'를 쓴 경우와 'is like'로 be동사와 일반동사를 중복해서 쓰는 경우가 많았다. 'baseball'은 불가산 명사인데 관사를 붙여서 'a baseball'이라고 쓰는 오류 등 목표어의 규칙을 확대 적용하는 오류가 나타났다. 이는 명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첨가항목을 만들지 않고 명사 항목의 오류에 넣었다. 그 외에 명사인 'baseball'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대명사를 넣는 오류도 발견되었다.

각 항목에 차지하는 오류율을 보면 동사가 가장 높았다. 문장이 짧고 간단한 문장이었고 평소에 많이 보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어순에 관한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7> 영작문항 2

|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4 | 26 | 86% | 4 | 18 | 81% |
| | 나는 내년 여름에 하와이(Hawaii)를 방문하길(visit) 희망해(hope) I hope to visit Hawaii next summer.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문항 2 | I hope visit Hawaii next summer. I hope visit to Hawaii next summer. I hope to visit the Hawaii. I next year to hope visit Hawaii. I hope next summer visit Hawaii. I | | | I hope visit Hawaii. I hope visit Hawaii next summer. I hope next summer visit Hawaii. I hope visit Hawaii next year summer. I hope to visit the Hawaii in next year. | | |
| | 명사 | 동사 | 어휘 | to부정사 | 어순 | 첨가 |
| 중3 | 1% | 7% | 16% | 20% | 9% | 43% |
| 고1 | 4% | 6% | 30% | 25% | 9% | 23% |

오답률은 중3이 86%, 고1이 81%였으며 ‘hope’ 뒤에는 to부정사나 that절을 쓰는데 ‘to’를 생략하는 경우와 ‘내년여름’을 뜻하는 ‘next summer’의 표현을 알지 못하고 ‘next year summer’라고 쓰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많았다. 또한 ‘Hawaii’ 앞에 ‘to’를 붙이는 오류, 동사를 중복해서 ‘hope’와 ‘is’를 같이 쓰는 오류 등이 나타났으며 ‘Hawaii’ 앞에 ‘the’를 붙여서 보통명사 앞에 관사를 붙이는 목표어의 규칙을 확대 적용하였다. ‘I next year to hope visit Hawaii.’나 ‘I hope next summer visit Hawaii.’처럼 어순을 틀리는 경우도 나왔다. 중3에서는 ‘첨가’ 부분에서의 오류가 두드러졌고 고1에서는 어휘에 관한 오류가 많았다.

<표8> 영작문항 3

|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 3 | 27 | 90% | 1 | 21 |
| 문항 3 | 나는 내일까지(tomorrow) 내 리포트(report)를 끝마쳐야 해(finish). I have to finish my report by tomorrow.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I finish the report to tomorrow. I report finish tomorrow. I finish me report tomorrow. I have to finish my report until tomorrow. I must finish to my report in tomorrow. | | | I finish my report tomorrow. I finish tomorrow my report. I finished report tomorrow. I have to finish my report until tomorrow. I will finish to my report in tomorrow. | | |
| | 명사 | 동사 | 소유격 | 전치사 | 어순 | 첨가 |
| 중3 | 5% | 24% | 9% | 40% | 9% | 11% |
| 고1 | 0% | 31% | 14% | 42% | 8% | 2% |

오답률은 중3이 90%, 고1이 95%로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tomorrow’ 앞에 ‘by’ 대신 ‘in’이나 ‘until’을 쓰거나 전치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고 ‘to’를 쓰는 오류도 종종 있었다. ‘해야 한다’는 의미인 ‘have to’를 생략하는 오류와 소유격을 생략하는 오류, 어순을 바꾸어 쓰는 오류도 있었다. 또한 소유격 대신 다른 관사를 넣거나 아예 아무것도 넣지 않아 한정사를 쓰지 않는 오류를 범

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소유격인 ‘my’ 대신 목적격인 ‘me’를 쓰기도 하였다. 가장 오류율이 높은 항목은 전치사였으며 ‘by’와 ‘until’의 구분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문법 오류중의 하나로 모두 ‘까지’라고 번역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기 쉽다. ‘by’를 써야 할 상황에서 많은 학생들이 ‘until’을 확대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by’를 쓴 학생은 중3에서 2명, 고1에서 4명이 있었다.

<표9> 영작문항 4

|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20 | 10 | 33% | 11 | 11 | 50% |
| 문항 4 | 우체국이 어디인가요? (post office) Where's the post office?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Where is post office? Where the post office? Where are post office? | | | Where is post office? Where are post office? | | |
| | 의문사 | 동사 | 관사 | 명사 | 어순 | 첨가 |
| 중3 | 0% | 27% | 63% | 0% | 0% | 0% |
| 고1 | 6% | 13% | 73% | 0% | 0% | 6% |

오답률은 중3이 33%였고 고1은 50%였다. 오류의 대부분은 관사인 ‘the’를 생략하는 경우가 차지했으며 이는 우리말에서 관사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로 볼 수 있다. 또한 ‘is’를 생략하거나 ‘is’ 대신

‘are’를 써서 수일치의 오류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is’와 ‘are’의 쓰임은 혼동하기 쉽다. 문장이 짧고 간단한 문장이었고 평소에 많이 보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어순에 관한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10> 영작문항 5

|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 4 | 26 | 86% | 2 | 20 | 90% | |
| 문항 5 | 그는 항상(always) 학교에(school) 늦게 온다. He always comes late to school. He is always late for school. |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 He always late school. He came always late to school. He always late in school. | | | He always late school. He late come school always. He always late on school. | | | |
| | 명사 | 부사 | 동사 | 형용사 | 전치사 | 어순 | 첨가 |
| 중3 | 6% | 2% | 41% | 11% | 16% | 16% | 4% |
| 고1 | 0% | 1% | 39% | 5% | 35% | 13% | 3% |

오답률은 중3이 86%, 고1이 90%로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late’를 동사로 알고 동사를 생략하는 오류와 ‘comes’에 ‘-s’를 붙이지 않아서 수를 일치시키지 않는 오류가 가장 많아서 ‘동사’ 항목에서의 오류율이 제일 높았다. ‘school’ 앞에 전치사 ‘to’를 쓰지 않고 ‘in’ 혹은 ‘on’을 쓰거나 아예 쓰지 않는 오류와 부사인 ‘always’의 위치를 잘못 배열하는 등의 어순에 관한 오류도 많았다.

<표11> 영작문항 6

| 문항 6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6 | 24 | 80% | 4 | 18 | 81% |
| | 난 내 자전거를(bike) 어제(yesterday) 잃어버렸어(lose). I lost my bike yesterday.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I lose my bike yesterday. I losed my bike yesterday. I bike lose yesterday. I'm yesterday lose my bike. | | | I lose my bike yesterday. I lose bike yesterday. I lost my bike in yesterday. I have lost my bike at yesterday. | | |
| | 명사 | 동사 | 소유격 | 부사 | 어순 | 첨가 |
| 중3 | 7% | 65% | 7% | 0% | 19% | 0% |
| 고1 | 9% | 39% | 18% | 3% | 18% | 4% |

오답률은 중3이 80%, 고1이 81%의 높은 오답률을 나타냈으며 두 집단의 오답률이 비슷했다. 'I lose my bike yesterday.'와 같은 시제 일치의 오류가 가장 많았다. 'lose'의 과거형이 'lost'임을 모르고 'losed'라고 쓰는 오류도 있었는데 이는 동사의 불규칙 과거형을 알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동사의 과거형엔 '-ed'를 붙인다는 목표어의 규칙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사' 항목에서의 오류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I bike lose yesterday.'나 'I'm yesterday lose my bike.'처럼 어순을 틀리는 오류, 'bike' 앞에 소유격을 생략한 오류 등이 나타났다. 특히 고1에서만 'yesterday' 앞에 'in' 혹은 'at'과 같은

전치사를 붙이는 오류와 ‘my bike’가 주체가 되어 주어자리에 놓고 능동형으로 ‘lost’를 써서 표현한 오류 등이 나와서 목표어의 다른 규칙들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더 많이 보였다.

<표12> 영작문항 7

|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8 | 22 | 72% | 1 | 21 | 95% |
| 문항 7 | 김씨는(Mr.Kim) 남자형제가(brother) 2명이 있어(have). Mr. Kim has two brothers.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Mr. Kim have two brother. Mr. Kim is brother have two. Mr. Kim has an brothers. Mr. Kim had two brothers. | | | Mr. Kim have two brother. Mr.Kim have brother. Mr.Kim has two brother. Mr.Kim is have two brother. | | |
| | 명사 | 동사 | | 형용사 | 어순 | |
| 중3 | 44% | 48% | | 3% | 3% | |
| 고1 | 51% | 40% | | 8% | 0% | |

오답률은 중3이 72%, 고1이 95%였으며 ‘Mr. Kim’이 3인칭이어서 수일치를 ‘has’로 시켜줘야 하지만 ‘have’를 쓰는 경우가 많았으며 2명의 남자형제이기 때문에 ‘brothers’라고 복수로 써야 하는데도 단수로 쓰는 오류, 또는 ‘an brothers’와 같은 오답으로 인해서 ‘명사’와 ‘동사’ 항목에서의 오류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has’ 대신 과거형인 ‘had’를 쓰거나 동사를 중복해서 ‘is have’라고 쓴 동사의 오류도 있었다. 또한 ‘Mr. Kim is brother have two.’와 같이 어순을 틀리는 오류가 중3에서 발견되었으며 고1에서는 어순에 관한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13> 영작문항 8

|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문항 8 | 7 | 23 | 76% | 5 | 17 | 77% |
| | 그는 매일(everyday) 학교로(school) 가(go). He goes to school everyday.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He go everyday school. He everyday go to the school. He is everyday go school. | | | He go to school everyday. He everyday go school. He is go to school everyday. He is everyday go to the school. | | |
| | 명사 | 동사 | 전치사 | 부사 | 어순 | 첨가 |
| 중3 | 2% | 40% | 16% | 0% | 29% | 10% |
| 고1 | 5% | 43% | 16% | 0% | 24% | 10% |

오답률은 중3이 76%, 고1이 77%로 비슷했으며 동사 ‘goes’ 대신 수일치를 시키지 않고 ‘go’를 쓰거나 be동사를 쓰는 오류와 be동사 ‘is’와 ‘go’를 중복해서 쓰는 오류 등의 동사에 관한 오류로 인해 ‘동사’ 항목의 오류율이 제일 높

게 나타났다. 또한 'He go everyday school.'과 같이 'everyday'의 어순을 지키지 않는 오류가 나타났다. '부사' 항목의 오류율이 0%인 이유는 질문의 힌트에 제시된 'everyday'를 모두 적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everyday'의 어순을 많이 틀렸기 때문에 어순에서의 오류율이 올라갔다. 그 이외에 'school'앞에 'to'를 생략한 오류와 관사 'the'를 첨가하는 오류도 발견되었다.

<표14> 영작문항 9

| 문항 9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 1 | 29 | 96% | 0 | 22 | 100% | |
| | 우리는 지난주에 그 파티에(party) 초대되지(invite) 않았다. We weren't invited to the party last week. |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 We don't invited last week party. We didn't invite the party in last week. We don't invite the party last weekend. We didn't invite for party last week. | | | We doesn't invite his party. We have not invited party last week. We didn't to invite the party last week. We don't invited the party last weekend. | | | |
| | 명사 | 동사 | 전치사 | 어휘 | 관사 | 어순 | 첨가 |
| 중3 | 7% | 27% | 25% | 13% | 19% | 4% | 2% |
| 고1 | 2% | 28% | 28% | 19% | 12% | 6% | 1% |

오답률은 중3이 96%, 고1이 100%로 중3 학생 단 한 명만이 정답을 썼다. 다양한 오답이 나왔는데 수동태를 쓰지 않고 능동태인 'don't'나 'didn't', 'doesn't', 'have not invited'를 사용하는 동사의 태의 오류와 'to'를 생략하는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또한 'to' 대신 'for'를 쓰는 오류도 있었다. 특히

‘doesn’t’와 ‘have not invited’의 형태는 고1에서만 나타났으며 이는 고1 집단이 목표어의 더 많은 규칙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last week’를 적지 못하거나 ‘week’ 대신 ‘weekend’라고 쓴 오류도 있었는데 이는 ‘week’와 ‘weekend’의 혼동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We don’t invited last week party.’와 같이 어순을 틀리는 오류와 ‘last week’ 앞에 ‘in’ 혹은 ‘at’과 같은 전치사를 첨가하는 오류, ‘invite’ 앞에 ‘to’를 첨가하는 오류 등도 발견되었다.

<표15> 영작문항 10

|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7 | 23 | 76% | 0 | 22 | 100% |
| 문항 10 | 그녀는 사과를(apple) 좋아하니(like)? Does she like apples?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Dose she like apple? Is she like apple? Dose she likes apple? She likes apple. | | | Is she like apple? Does she likes apple? She like apple? She is like apple? | | |
| | 명사 | | 동사 | | 어순 | |
| 중3 | 68% | | 24% | | 8% | |
| 고1 | 52% | | 44% | | 2% | |

오답률은 중3이 76%, 고1이 100%로 특히 고1의 오답률이 높았다. 이 문제에서는 평서문으로 쓰면서 물음표를 넣은 문장은 의문문형태로 보았지만 물음표를 넣지 않은 평서문은 의문문 만드는 어순에서 오류를 보이는 것으로 채점하였다. 가장 오류가 많이 나온 항목은 '명사' 항목으로 'apple'이 가산명사인데도 복수형을 만들지 않거나 무관사로 만들어서 'apple'만 적어주었다. 명사에서 오류는 중3이 고1보다 높았던 반면 동사에서는 고1의 오류율이 높게 나타났다. 동사에서의 오류는 'does'를 사용하지 않고 'Is she like apple?'의 형태로 'is'와 'like'를 중복해서 쓰는 경우와 'Dose she likes apple?'처럼 의문문인데도 불구하고 'like'의 형태를 3인칭 단수 주어인 'she'에 일치시켜 'likes'라고 쓰는 오류가 나타났다. 이는 평서문에서의 목표어의 규칙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평서문 형태의 오류를 중3과 고1을 비교해보면, 중3에서는 'She likes apple.'이라고 물음표를 붙이지는 않았지만 3인칭 단수주어에 수일치는 잘해준 오류가 많은 반면 고1은 물음표는 붙였지만 'She like apple?'의 형태로 수를 일치시키지 않은 오류가 많았다.

<표16> 영작문항 11

|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 8 | 22 | 73% | 0 | 22 |
| 문항 11 | 너는 프랑스에(France)가본 적 있니? Have you been to France?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Have you been France? Have you ever been France? Did you go to France? Do you have been to the France? You go to a France. Have ever you go france? Did you went to France? Do you went to go France? | | | Have you ever been France? Have you ever go to France? Have you ever gone in France? Are you going to the France? Are you go to france? Do you go to the France? You where are you France? You have been France. | | |
| | | 명사 | 동사 | 전치사 | 어순 | 첨가 |
| | 중3 | 6% | 37% | 37% | 10% | 6% |
| 고1 | 9% | 40% | 25% | 15% | 9% | |

오답률은 중3이 73%, 고1이 100%로 특히 고1의 오답률이 높았다. 오류는 ‘동사’ 항목에서 제일 높았는데 현재완료 시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형태를 알지 못해 오류를 범하거나 현재시제나

과거시제, 미래시제를 대신 사용하였다. 전치사 'to'를 생략하는 오류도 많이 발견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 관사를 붙이는 목표어의 규칙을 확대 적용하여 'France' 앞에 'a'나 'the'를 붙이는 오류를 범하였다. 또한 'do' 또는 'did'랑 'went'를 중복사용하기도 하였으며 'France'에서 'F'를 대문자로 쓰지 않고 소문자로 쓰는 오류, 'France' 앞에 'to' 대신 'in'을 넣는 오류, 'you'를 2번 쓰는 오류, 평서문으로 쓰는 오류 등이 발견되었다.

<표17> 영작문항 12

|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 0 | 30 | 100% | 0 | 22 |
| 문항 12 | Tom은 지난 일요일(Sunday)에 수영하러(swim) 갔어. Tom went swimming last Sunday.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Tom has gone swiming last Sunday. | | | Tom was went to swim last Sunday. | | |
| | Tom go to swim at last Sunday. Tom went to swim on last Sunday. | | | Tom goes to swim last Sunday. Tom is going to the swimming last Sunday. | | |
| | Tom was go to the swim last Sunday. Tom going to swim late Sunday. Tom is swim last Sunday. Tom was swim last Sunday. Tom is Sunday swim go. Tom rast swim Sunday going. | | | Tom is Sunday swim go. Tom was go to a swim last Sunday. Tom is last Sunday go to swim. | | |
| | 동명사 | 명사 | 동사 | 어휘 | 어순 | 첨가 |
| 중3 | 34% | 0% | 22% | 10% | 3% | 28% |
| 고1 | 26% | 0% | 30% | 12% | 7% | 23% |

오답률은 중3, 고1 모두 100%로 아무도 정답을 쓰지 못했다. 동명사와 동사의 시제나 불규칙 동사의 과거형태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swimming’ 대신 ‘swim’을 쓰는 오류가 많았고 중3에서만 ‘swimming’에서 ‘m’을 하나만 쓰는 오류가 발견되었다. ‘동사’ 항목에서는 시제를 과거시제인 ‘went’라고 쓰지 않고 동사를 아예 생략하거나 현재시제인 ‘go’ 혹은 ‘goes’와 미래시제인 ‘going to’를 썼으며 중3에서만 완료시제로 ‘has gone’이라고 쓴 오류도 발견되었다. 또한 과거시제를 의도하였으나 불규칙과거형인 ‘went’의 형태를 알지 못해 ‘was go’라고 쓰는 오류, be동사 ‘is’나 ‘was’를 ‘went’ 대신 쓰거나 ‘was went’라고 중복해서 쓰는 오류 등이 나타나 ‘동사’ 항목에서의 오류율이 높아졌다. ‘last Sunday’의 경우 이 표현을 알지 못해 ‘last’를 적지 못했고 ‘last’ 대신 ‘late’나 ‘rast’라고 적기도 하였다. 그 외에 어순의 오류도 있었고, 첨가의 오류도 많이 발견되었는데 ‘last Sunday’ 앞에 ‘at’, ‘on’, ‘the’, ‘in’을 붙이는 오류는 중3에서만 나타났다. 또한 ‘went’ 와 ‘swimming’ 사이에 ‘to’를 첨가하는 오류, ‘swim’ 앞에 ‘a’를 붙이는 오류 등이 발견되었다.

<표18> 영작문항 13

| 문항 13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11 | 19 | 63% | 11 | 11 | 50% |
| | 그는 행복해(happy) 보인다(look). He looks happy.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He looks like happy. He look like happy. He look for happy. He looks happiness. He look happy. | | | He look happy. He is look happy. He look like happy. He is so look happy. | | |
| | 명사 | 동사 | 형용사 | 어순 | 첨가 | |
| 중3 | 0% | 50% | 3% | 3% | 42% | |
| 고1 | 6% | 56% | 0% | 6% | 31% | |

오답률은 중3이 63%, 고1이 50%로 다른 문제에 비해 낮은 오답률을 보였다. 동사에 관한 오류가 두드러졌으며 수일치를 시키지 않고 'look'이라고 쓰는 오류가 많았으며 고1에서만 'is look'이라고 하여 동사를 중복하는 오류가 발견되었다. 또한 'look' 뒤에 'like'를 첨가하는 오류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like'가 '-같이'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행복한 것 같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여 'like'를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용사 'happy' 대신 명사 'happiness'를 쓰는 오류도 나타났는데 이는 보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9> 영작문항 14

|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 | | 1 | 29 | 96% | 1 | 21 | 95% | |
| 문항 14 | 어제(yesterday) 햄버거(hamburger)를 얼마나 많이 먹었니(eat)? How many hamburgers did you eat yesterday? | | | | | | | |
| | 오답내용 | | | | 오답내용 | | | |
| | How many do you eat hamburger yesterday? How much eat hamburger in yesterday? How many hamburgers ate yesterday? | | | | How many hamburger eat yesterday? How many ate hamburger yesterday? How many eat hamburgers yesterday? | | | |
| | How many eat to hamburger yesterday? How many eat to hamburger yesterday? | | | | How many ate the hamburger yesterday? How eat hamburger yesterday? Do you eat hamburger yesterday? | | | |
| | How much did you eat hamburger yesterday? | | | | Yesterday eated hamburger? | | | |
| | 의문사 | 명사 | 동사 | 형용사 | 부사 | 어순 | 첨가 | |
| 중3 | 3% | 26% | 28% | 12% | 3% | 21% | 5% | |
| 고1 | 11% | 26% | 23% | 13% | 5% | 16% | 1% | |

오답률은 중3이 96%, 고1이 95%로 각 집단에서 1명씩만 정답을 써서 오답률이 매우 높았다. 동사에서 오류는 과거시제 ‘did’ 대신 ‘do’를 쓰는 오류, ‘did’를 아예 쓰지 않고 ‘ate’만 쓰거나 ‘eat’의 과거형을 시도하려고 ‘eated’로 쓰는 오류, 문체에 제시된 ‘eat’만 쓰는 오류 등이 있었다. 명사에서는 복수로 쓰지 않고 ‘hamburger’라고 쓴 오류가 많았으며 우리말로 복수를 잘 붙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모국어 간섭현상에 의한 오류로 볼 수 있다. 어순에서는 ‘How many do you eat hamburger yesterday?’와 같이 어순을 바꿔 쓴 오류가 많았고 ‘do you’나 ‘did’로 시작하는 의문사의 생략 오류가 나타났다. 특히 고1에서만 ‘yesterday’를 맨 앞에 쓰는 학생이 4명 있었으며 ‘How’ 대신 ‘What’으로 시작하는 학생도 1명 있었다. 수량형용사 부분에서는 ‘many’를 생략하는 오류, ‘many’의 철자를 틀려서 ‘mani’라고 쓰는 오류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중3에서만 ‘many’ 대신 ‘much’를 쓰는 오류가 있었다. 그 이외에 ‘yesterday’ 앞에 ‘in’을 쓰거나 ‘hamburger’ 앞에 ‘to’나 ‘the’를 붙이는 첨가의 오류 등도 나타났다.

<표20> 영작문항 15

| 문항 15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1 | 29 | 96% | 0 | 22 | 100% |
| | 내가 비닐봉지 가질(have) 수 있겠니(can)? Can I have a plastic bag?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Can I have 비닐봉지? Can I have a 비닐봉지? I can 비닐봉지 have. Can I have vinyl box? Can I have vinyl package? Can I have an envelope? | | | Can I have 비닐봉지? I can have 비닐봉지. Can I have Can I have a 비닐봉지? Can I have the 비닐? | | |
| | 명사 | 동사 | 관사 | 어휘 | 어순 | |
| 중3 | 0% | 5% | 25% | 58% | 11% | |
| 고1 | 2% | 2% | 36% | 47% | 11% | |

오답률은 중3이 96%, 고1이 100%로 오답률이 매우 높았으며 위 문제에서는 ‘plastic bag’을 ‘어휘’ 항목으로 분류하여 오류율을 계산하였다. 또한 의문문이기 때문에 평서문이면서 물음표를 쓰지 않은 형태는 어순의 오류로 보았다. 중3에서는 ‘plastic bag’이란 단어를 1명 적어주었으며 비록 평서문의 형태로 적었으나 물음표를 적어주어서 정답으로 보았다. 고1에서는 이 단어를 적은 학생이 아무도 없었다. 오답 유형을 보면 아예 ‘비닐봉지’에 해당하는 자리를

비워놓거나 한글로 적었으며 ‘vinyl box’, ‘vinyl package’ 혹은 ‘envelope’로 썼다. 이는 외래어의 간접으로 ‘vinyl’을 그대로 쓴 것이며 ‘envelope’라고 쓴 경우는 ‘비닐봉투’라는 단어에서 ‘봉투’ 부분만 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명사 앞에 관사를 붙이지 않고 쓰는 오류가 많았으며 ‘Can’으로 의문문을 시작하지 않고 평서문의 어순으로 쓰는 경우도 많았다.

<표21> 영작문항 16

|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 | 6 | 24 | 80% | 4 | 18 | 81% |
| 문항 16 | 그의 어머니는(mother) 부엌에(kitchen) 있다. His mother is in the kitchen. |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 His mother in the kitchen. His mother is kitchen. His mother is in kitchen. He mother kitchen here. He mother in the kitchen. He kitchen mother. | | | His mother in the kitchen. His mother is in kitchen. He is in kitchen mother. He mother in kitchen His mother there is kitchen. He is mother where kitchen. | | | |
| | 명사 | 동사 | 관사 | 전치사 | 소유격 | 어순 | 첨가 |
| 중3 | 4% | 36% | 27% | 20% | 9% | 2% | 2% |
| 고1 | 5% | 19% | 25% | 22% | 11% | 2% | 13% |

오답률은 중3이 80%, 고1이 81%로 비슷했으며 중3에서는 동사에서의 오류가 가장 많았고 고1에서는 관사를 붙이지 않는 오류가 가장 많았다. ‘동사’ 항목에서는 동사를 생략하는 오류가 대부분이었으며 소유격인 ‘his’를 쓰지 않고 ‘he’만 쓰거나 ‘he is’로 문장을 시작하였다. 또한 ‘kitchen’ 앞에 ‘in’과 ‘the’를 둘 다 생략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생략하여 전치사와 관사를 생략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특히 고1에서는 첨가의 오류가 많았는데 ‘here’, ‘there’, ‘where’ 등을 첨가하였다.

<표22> 영작문항 17

|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17 | 13 | 43% | 9 | 13 | 59% |
| 문항 17 | 그것은(it) 책상(desk) 위에 있다. It's on the desk.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It on the desk. It desk. It is on the dest It on desk. | | | It on the desk. It is on desk. It over the desk. It is under the desk. It there is desk. There is on the desk it. | | |
| | 명사 | 동사 | 전치사 | 관사 | 어순 | 첨가 |
| 중3 | 14% | 35% | 21% | 28% | 0% | 0% |
| 고1 | 4% | 18% | 36% | 18% | 0% | 22% |

오답률은 중3이 43%, 고1이 59%로 다른 문제에 비해 낮게 나왔다. 중3에서는 동사에서 오류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모두 동사를 생략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고1에서의 동사의 오류도 동사의 생략이었으며 고1에서는 ‘전치사’ 항목에서의 오류가 두드러졌다. 전치사 ‘on’을 생략하는 오류가 나왔고 ‘over’, ‘under’를 쓴 학생이 각각 2명씩 있었으며 다른 전치사를 쓴 오류는 고1집단에서만 나타났고 중3에서는 생략의 오류만 나타났다. 이는 고1이 중3 보다 더 많은 전치사를 알고 있고 이를 적용하려는 시도에서 오는 오류로 보인다. 관사에서 오류를 보면 중3이 고1에 비해 더 많이 ‘the’를 생략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첨가’ 항목을 보면 중3은 첨가한 것이 없으나 고1에서는 ‘there’를 첨가한 학생이 여럿 있었다. 중3에서 명사의 오류가 14%가 나온 것은 ‘desk’의 철자가 문제에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est’라고 철자를 잘못 쓴 오류와 ‘desk’어휘의 생략으로 인한 것이다.

<표23> 영작문항 18

| 문항 18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1 | 29 | 96% | 1 | 21 | 95% |
| | 그는 노래를(song) 불렀다(sing). He sang a song.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He was sing a song. He sing song. He sing a song. He sings a song. He is sing song. He songs sing. He sings and song. He is song sing. | | | He is sing a song. He sings song. He sing a song. He song sing. He song in. He is sing in song. He was sing a song. | | |
| | 명사 | 동사 | 관사 | 어순 | 첨가 | |
| 중3 | 0% | 63% | 31% | 2% | 2% | |
| 고1 | 0% | 65% | 18% | 9% | 6% | |

오답률은 중3이 96%, 고1이 95%로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다 동사에서의 오류가 가장 많았다. 과거동사를 쓰지 않고 'sing', 'sings'를 썼으며 'sing'이라고 쓴 경우는 'he'와 수일치 또한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was sing', 'is sing'으로 동사를 중복해서 사용하였는데 특히 'was sing'의 경우 과거시제를 의도

하였으나 불규칙 과거형인 ‘sang’을 알지 못해 쓰는 오류로 볼 수 있겠다. 불규칙 동사는 중학교 1학년에서 배움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규칙 동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관사에서의 생략이 많았으며 ‘song’과 ‘sing’의 어순을 바꾸어 쓰는 오류도 발견되었는데 이 둘의 의미에 대해 혼동하거나 우리말의 어순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았다. 그 외 ‘sings’와 ‘song’ 사이에 ‘and’를 첨가하는 오류, ‘song’앞에 ‘in’을 첨가하는 오류 등이 발견되었다.

<표24> 문항 19

|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 11 | 19 | 63% | 5 | 17 |
| 문항 19 | 우리는 또 다른 의자가(chair) 필요하다(need). We need another chair.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We need to chair. We need the other chair. We another need to chair. We need other chair. | | | We need to the other chair. We needs other chair. We are need to another chair. We have need another chair. We another chair need. | | |
| | 명사 | 동사 | 형용사 | 어순 | 첨가 | |
| 중3 | 5% | 26% | 42% | 5% | 21% | |
| 고1 | 14% | 40% | 25% | 7% | 11% | |

오답률은 중3이 63%, 고1이 77%였으며 중3에서는 형용사의 오류가 가장 많았는데 ‘another’를 생략하거나 ‘the other’ 혹은 ‘other’를 쓰는 오류가 발견되었다. ‘another’는 ‘an’과 ‘another’의 합성어로 한 단어이며 학생들이 ‘another’, ‘the other’, ‘other’ 등의 쓰임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고1에서는 동사의 오류가 가장 많았고 ‘are need’, ‘have need’와 같은 동사중복 오류, 주어가 ‘we’인데도 불구하고 ‘need’에 ‘-s’를 붙여서 ‘needs’라고 쓰는 오류 등이 나타났다. 또한 동사 ‘need’ 뒤와 명사 사이에 ‘to’를 첨가하는 오류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need+to부정사’의 목표어의 규칙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25> 영작문항 20

|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2 | 28 | 93% | 1 | 21 | 95% |
| 문항 20 | 나는 고양이(cat)를 좋아하지(like) 않아. I don't like cats.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I don't like cat. I not like a cat. I not like cat. | | | I don't like cat. I am cat like cat. | | |
| | 명사 | | 동사 | | 어순 | |
| 중3 | 90% | | 9% | | 0% | |
| 고1 | 91% | | 4% | | 4% | |

오답률은 중3이 93%, 고1이 95%로 높았으며 명사의 오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부분의 오답은 'I don't like cat.'으로 가산명사인 'cat'을 복수로 만들지 않으면서 관사도 붙이지 않았다. 이는 우리말에서는 관사를 잘 쓰지 않으며 복수를 의미하는 경우에도 복수형을 잘 쓰지 않는 모국어의 간섭현상으로 인한 오류로 볼 수 있다. 또한 'do'를 생략하고 주어 다음에 바로 'not like'를 쓰는 오류, 'am'으로 대신해서 'I am cat like cat.'에서처럼 'don't'를 생략하고 'am'과 'like'를 중복, 'cat'을 2번 쓰는 오류도 나타났다.

<표26> 영작문항 21

| 문항 21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2 | 28 | 93% | 3 | 19 | 86% |
| | 그는 나에게 저(that) 연필을(pencil) 주었다(give). He gave me that pencil.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He give me that pencil. He me pencil give that. He gives me that pencil. He gives that pencil to me. He gave the that pencil to me. He gives me that a pencil. He is my that pencil give. | | | He gives me that pencil. He give me that pencil. He give me a pencil. He give me pencil. He is my that pencil give. He is gave me that pencil. He is give that pencil. | | |
| | 명사 | 동사 | 형용사 | 어순 | | |
| 중3 | 8% | 75% | 0% | 16% | | |
| 고1 | 9% | 80% | 4% | 4% | | |

오답률은 중3이 96%, 고1이 86%였으며 동사에서의 오류가 가장 두드러졌다. 과거시제인 'gave'를 쓰지 않고 'give'를 쓴 오답이 가장 많았으며 'gives'라고 쓴 오답이 뒤를 이었다. 또한 동사를 중복해서 'is gave' 혹은 'is give'라고 쓴 오류도 발견되었다. 'that a pencil', 'the that pencil', 'my that pencil'에 서와 같이 한정사를 중복해서 쓴 경우도 있었으며 'pencil' 앞에 'that'을 생략

하는 오류, 'that' 대신에 'a'를 쓰는 오류가 있었다. 어순을 틀리는 오류는 중3이 고1에 비해 많았으며 'He me pencil give that'의 오류는 우리말 어순으로 시도한 모국어의 간접현상으로 인한 오류로 볼 수 있겠다. 또한 '명사' 항목에 서는 간접목적어인 'me'를 생략하는 오류 등이 나타났다.

<표27> 영작문항 22

|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1 | 29 | 96% | 0 | 22 | 100% |
| 문항 22 | 나 머리(hair) 잘랐어(cut). I had my hair cut.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I cut hair. I cut my hair. I hair cut. I'm cut hair. I was hair cut. | | | I cut hair. I cut my hair. I'm hair cut. I hair cut. I have my hair cut. I cutting hair. | | |
| | 명사 | 동사 | 소유격 | 어순 | | |
| 중3 | 0% | 37% | 25% | 37% | | |
| 고1 | 0% | 37% | 27% | 34% | | |

오답률은 중3이 96%, 고1이 100%로 매우 높았으며 가장 많이 나온 오답은

두 집단 모두 'I cut hair.'였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문장은 두 집단 모두 'I cut my hair.'였으며 소유격 'my'가 추가되었다. 'I had my hair cut'은 5형식으로 학생들에게 사역동사 'had'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오답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I had'를 쓰지 않고 'I cut', 'I 'm', 'I was', 'I cutting' 등으로 문장을 시작하였으며 고1 집단에서 2명은 사역동사를 시도하였지만 'had'가 아닌 'have'로 써주었다. 대부분이 5형식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어순에서의 오류율이 높아졌다. 중3, 고1에서 모두 나타난 'I hair cut'은 우리말 어순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모국어의 간섭현상으로 인한 오류로 볼 수 있다.

<표28> 영작문항 23

|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 | 3 | 27 | 90% | 2 | 20 | 90% |
| 문항 23 | 나는 저번 일요일(Sunday)에 공원(park)에서 그녀를 보았어(see). I saw her at the park last Sunday. |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 I see her park last Sunday. I see her to park, last Sunday. I see of park at last Sunday. I see her in park late Sunday. I late Sunday park she see. I saw the girl at the park in last Sunday. | | | I saw her at park last Sunday. I'm Sunday park she is see. I see her is park last Sunday. I see to her at park last Sunday. I saw she Sunday park. | | | |
| | 명사 | 동사 | 전치사 | 관사 | 어휘 | 어순 | 첨가 |
| 중3 | 4% | 23% | 23% | 19% | 9% | 7% | 11% |
| 고1 | 8% | 24% | 14% | 20% | 14% | 12% | 3% |

오답률은 중3, 고1이 모두 90%로 높았으며 두 집단 모두에서 동사의 오류가 두드러졌다. 불규칙 과거동사 'saw'를 쓰지 않고 현재시제인 'see'를 쓰는 오류가 대부분이었고 be동사를 쓰는 오류도 있었다. 전치사의 오류는 중3이 고1보다 많았는데 'at'을 생략했으며 'to'나 'of'를 쓰는 오류도 있었다. 관사도 또한 생략의 오류가 많았으며 'last Sunday'를 생략하거나 'last'대신 'late'를

쓰는 오류가 발견되었다. 명사에서는 목적격대명사인 'her'를 쓰지 않고 'she'를 쓰는 오류가 있었으며 'her' 앞에 'to'를 첨가, 'last Sunday' 앞에 'in'이나 'at', '콤마'를 첨가하는 학생도 있었다. 그 외에 어순을 바꿔 쓰는 오류도 발견되었다.

<표29> 영작문항 24

|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문항 24 | 1 | 29 | 96% | 1 | 21 | 95% |
| | 누가(who) 그렇게(that) 말했어(say)? Who said that?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Who say that? Who that say? Who is that say? Who is say that? Who did say that? | | | Who say that? Who that say? Who is that say? Who is say that? Who saying that? | | |
| | 의문사 | 명사 | 동사 | 어순 | 첨가 | |
| 중3 | 0% | 3% | 74% | 18% | 3% | |
| 고1 | 0% | 3% | 66% | 30% | 0% | |

오답률은 중3이 96%, 고1이 95%로 각 집단에서 한 명씩만 정답을 써서 매우 높은 오답률을 보였다. 두 집단 모두 가장 많이 나온 오답은 중3학생 10명,

고1학생 9명이 적어준 'Who say that?'로 'Did'를 쓸 것이란 예상과 달리 시제에서만 오류를 범한 오답이 많았다. 'did'를 쓴 학생은 중3에서만 한 명이 있을 뿐이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오답은 'Who that say?'로 우리말의 어순을 그대로 옮겨 모국어의 간접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사를 중복해서 'is'랑 'say'를 같이 쓰는 오류도 발견되었으며 'saying'이라고 쓴 오류도 있었다.

<표30> 영작문항 25

|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 3 | 27 | 90% | 1 | 21 |
| 문항 25 | 우리는 한국에(Korea) 있는 인천(Incheon)공항에(airport) 도착했어(arrive). We arrived at Incheon Airport in Korea.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We arrived Incheon airport in Korea. | | | We arrived the Korea in Incheon airport. | | |
| | We arrive at Incheon airport in korea. | | | We arrived Incheon airport in Korea. | | |
| | We arrive the Incheon airport in Korea. | | | We arrived Incheon airport at Korea. | | |
| We arrive at airport , Incheon in Korea. | | | We arrived the Incheon airport in Korea. | | | |
| We arrive the Korea in the Incheon. | | | We are arrive a Korea in Incheon airport. | | | |
| We korea is incheon airport arrive. | | | We Korea in Incheon ariport arrive. | | | |
| | 명사 | 동사 | 전치사 | 어순 | 첨가 | |
| 중3 | 15% | 18% | 33% | 15% | 18% | |
| 고1 | 19% | 17% | 39% | 17% | 7% | |

오답률은 중3이 90%, 고1이 95%로 매우 높았다. 전치사에서의 오류가 두드러졌으며 'at'과 'in'의 생략과 'Korea'앞에 'at'을 쓰는 오류 등이 있었다. 동사에서의 오류는 과거시제로 쓰지 않고 현재시제로 쓰는 오류, be동사 'is'나 'are'를 중복해서 쓰는 오류가 나타났다. 명사에서는 'Incheon Airport'와 'Korea'가 고유명사라 대명사로 시작해야 되는데 소문자로 시작하는 오류가 있었으며 'We arrive at airport, Incheon in Korea.'와 같이 중간에 '콤마'를 넣는 오류는 아마도 평소에 'seoul, Korea.'와 같은 표현을 보고 목표어의 규칙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Korea'와 'Incheon' 앞에 'the'를 첨가하는 오류가 있었으며 고1에서만 'a Korea'라고 쓰기도 하였다. 또한 'Incheon airport'와 'Korea'의 어순을 바꾸는 오류가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말 어순 그대로 옮기는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로 볼 수 있겠다.

<표31> 영작문항 26

| 문항 26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 15 | 15 | 50% | 2 | 20 | 90% | |
| | 우리 엄마(mother)는 훌륭한(good) 요리사이다. My mother is a good cook. |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 My mother is good cook. My mother is good cooker. We mother good cook. My mother good cook. Our mother are good cook. | | | My mother is good cook. My mother good cook. My mother is good cooker. My mother good cooking. Our mother good cooker. | | | |
| | 명사 | 동사 | 소유격 | 관사 | 형용사 | 어휘 | 어순 |
| 중3 | 0% | 17% | 3% | 67% | 0% | 10% | 0% |
| 고1 | 2% | 20% | 14% | 47% | 0% | 14% | 0% |

오답률은 중3이 50%, 고1이 90%로 고1에서의 오답률이 높게 나왔다. 두 집단 모두 가장 많이 나온 오답은 'My mother is good cook.'으로 관사를 생략하였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오답은 중3에서는 'My mother is good cooker.'로 사람의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일 경우 '-er' 어미를 붙이는 목표어의 규칙을 확대 적용하였으며 역시 관사를 생략하였다. 고1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오답은 'My mother good cook.'으로 동사와 관사의 생략이 있었다. 동사의 생략 외에도 'is' 대신 'are'를 써서 수일치를 시키지 않는 오류가 중3에서만 나타났

으며 ‘cooking’이라고 쓴 오류가 고1에서만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말로
 는 ‘나의 엄마’라고 잘 하지 않고 ‘우리 엄마’라고 말하지만 영어에서는 ‘my
 mother’라고 쓰는데 ‘our mother’라고 쓰는 답변이 꽤 있었다. 하지만 친형제
 들이 여럿 있는 상황에서는 ‘our mother’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으로 처리하
 였다.

<표32> 영작문항 27

|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3 | 27 | 90% | 0 | 22 | 100% |
| 문항 27 | 그는 방안으로(room) 들어갔다(enter). He entered the room.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He enter the room. He was enter room. He is enter room. He enters in a room. He enter at room. He enter to the room. | | | He enter the room. He entered room. He enter room. He in the room enter. He is enter room. | | |
| | 명사 | 동사 | 관사 | 어순 | 첨가 | |
| 중3 | 0% | 53% | 28% | 0% | 18% | |
| 고1 | 3% | 43% | 36% | 6% | 10% | |

오답률은 중3이 90%, 고1이 100%로 간단한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오답률을 보였다. 동사에서 오류가 두드러졌으며 ‘enter’나 ‘enters’를 쓰거나 과거시제를 시도하긴 하였으나 ‘was enter’와 같이 동사 중복형태로 적었으며 ‘is enter’라고 쓴 오류도 있었다. ‘entered’가 불규칙 과거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을 적지 못했다. 관사 ‘the’의 생략이 많았는데 이는 우리말에서는 관사를 잘 붙이지 않기 때문이며 ‘enter’뒤에 ‘in’, ‘to’, ‘at’을 첨가하는 오류의 경우를 보면 우리말로 ‘-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여서 전치사를 붙이려는 모국어의 간섭현상에 의한 오류로 볼 수 있다.

<표33> 영작문항 28

| 문항 28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5 | 25 | 83% | 1 | 21 | 95% |
| | 손(hand) 닦아라(wash). Wash your hands.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Wash your hand. Wash the hand. Wash hand. Washed hand. Washing the hand. Hand wash. Wash is hand. | | | Wash your hand. Wash hand. Washing your hands. Washed hand. Hand wash. | | |
| | 명사 | 동사 | 소유격 | 어순 | | |
| 중3 | 46% | 10% | 35% | 7% | | |
| 고1 | 46% | 17% | 28% | 7% | | |

오답률은 중3이 83%, 고1이 95%로 특히 고1의 오답률이 높았으며 명사의 오류가 많았다. ‘hand’라고 써서 복수를 만들지 않았으며 이는 우리말로 생각했을 때 ‘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손’이라고 하기 때문에 모국어의 간접 현상으로 인한 오류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오류는 소유격에 관한 것으로 소유격인 ‘your’를 생략하거나 ‘the’를 대신 썼다. 동사에서의 오류를 보

면 명령문의 동사는 동사원형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washed’, ‘washing’으로 시작하였으며 특히 중3에서만 ‘wash’와 ‘is’를 중복해서 사용하였다. 그 외 ‘wash’와 ‘hands’의 어순을 바꾸어 쓰는 어순의 오류도 나타났다.

3.2.3. 문법적 오류 분석

<표34> 문법적 오류분석표

| | 명사 | 형용사 | 동사 | 부사 | 전치사 | 관사 | to 부정사 | 동명사 | 소유격 | 의문사 | 어휘 | 어순 | 첨가 | |
|--------|-----|----------|--------|----------|--------|---------|---------|-------|-------|--------|-------|--------|----------|---------|
| 중 3 | 오류수 | 109/1620 | 22/210 | 306/840 | 3/120 | 96/270 | 93/270 | 11/30 | 23/30 | 37/180 | 2/90 | 46/180 | 104/840 | 98/540 |
| | 비율 | 6 | 10 | 36 | 2 | 32 | 34 | 36 | 76 | 20 | 2 | 25 | 12 | 18 |
| | 순위 | 11 | 10 | 2 | 12 | 5 | 4 | 2 | 1 | 7 | 12 | 6 | 9 | 8 |
| 고 1 | 오류수 | 135/1188 | 23/154 | 347/616 | 8/88 | 116/198 | 90/198 | 11/22 | 17/22 | 48/32 | 9/66 | 44/32 | 119/616 | 70/396 |
| | 비율 | 11 | 14 | 56 | 9 | 52 | 45 | 50 | 77 | 36 | 13 | 33 | 19 | 17 |
| | 순위 | 12 | 10 | 2 | 13 | 3 | 5 | 4 | 1 | 6 | 11 | 7 | 8 | 9 |
| 계 | 오류수 | 262/2808 | 45/364 | 653/1456 | 11/208 | 212/468 | 183/468 | 22/52 | 40/52 | 85/310 | 11/56 | 90/12 | 223/1456 | 168/936 |
| | 비율 | 9 | 12 | 44 | 5 | 40 | 39 | 42 | 76 | 27 | 6 | 28 | 15 | 17 |
| | 순위 | 11 | 10 | 2 | 13 | 4 | 5 | 3 | 1 | 7 | 12 | 6 | 9 | 8 |

영작 문제의 각 문항에 나타난 오류들의 각 항목은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관사, to부정사, 동명사, 소유격, 의문사, 어휘, 어순, 첨가의 13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서 알아보았다. 위 표의 순위에서 보듯이 중3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부터 보면 동명사, 동사와 to부정사, 관사, 전치사, 어휘, 소유격, 첨가, 어순, 형용사, 명사, 부사와 의문사의 순이었다.

고1에서는 동명사, 동사, 전치사, to부정사, 관사, 소유격, 어휘, 어순, 첨가, 형용사, 의문사, 명사, 부사의 순이었다. 두 집단 모두 동명사와 동사의 오류율이 높았으며 동명사도 동사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상 동사의 오류율이 제일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명사와 to부정사를 동사와 따로 분류하여 통계를 내었는데 이는 동명사와 to부정사에 대해 학생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함이었다. 가장 적게 오류율이 나타난 것은 중3에서는 부사와 의문사였고 고1에서는 명사였다. 하지만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두 집단 모두 오류율이 가장 적게 나타난 순위인 11~13위 모두가 명사, 의문사, 부사가 차지한 것으로 보아 두 집단이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작 부분의 두 집단의 오류를 합쳐서 통계를 내서 가장 많이 오류가 발생한 것부터 순위를 매기면 동명사, 동사, to부정사, 전치사, 관사, 어휘, 소유격, 첨가, 어순, 형용사, 명사, 의문사, 부사의 순이었다. 두 집단 모두 합친 결과도 동명사와 동사, to부정사의 오류율이 높았으며 명사, 의문사, 부사의 오류율이 낮게 나왔다.

3.2.4. 원인별 오류 분석

영작문제의 원인별 오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5>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분석표

| 문항번호 | 평가항목 | 오류항목 | 중3 오류수 | 고1 오류수 | 총 오류수 | 오류율 |
|------|-------|------------|-----------|-----------|----------|-----|
| 1 | 명사 | 불가산명사 | 1/30 | 2/22 | 3/52 | 5 |
| | 동사 | 동사 | 4/30 | 13/22 | 17/52 | 32 |
| 2 | 동사 | 동사 | 4/30 | 3/22 | 7/52 | 13 |
| | 첨가 | 불필요한 부분 첨가 | 23/30 | 10/22 | 33/52 | 63 |
| | to부정사 | to부정사의 사용 | 11/30 | 11/22 | 22/52 | 42 |
| | 어휘 | 어휘 | 9/30 | 13/22 | 22/52 | 42 |
| 3 | 동사 | 동사 | 13/30 | 5/22 | 28/52 | 51 |
| | 첨가 | 불필요한 부분 첨가 | 6/30 | 1/22 | 7/52 | 13 |
| | 전치사 | 전치사 | 22/30 | 20/22 | 42/52 | 80 |
| 4 | 동사 | 동사 | 3/30 | 2/22 | 5/52 | 9 |
| | 첨가 | 불필요한 부분 첨가 | 0/30 | 1/22 | 1/52 | 1 |
| | 어순 | 어순 | 1/30 | 0/22 | 1/52 | 1 |
| 5 | 동사 | 동사 | 18/30 | 20/22 | 38/52 | 73 |
| | 형용사 | 형용사 | 5/30 | 3/22 | 8/52 | 15 |
| | 전치사 | 전치사 | 7/30 | 18/22 | 25/52 | 48 |
| | 첨가 | 불필요한 부분 첨가 | 2/30 | 2/22 | 4/52 | 7 |
| 6 | 동사 | 불규칙동사의 과거형 | 17/30 | 13/22 | 30/52 | 57 |
| | 첨가 | 불필요한 부분 첨가 | 0/30 | 4/22 | 4/52 | 7 |
| 7 | 동사 | 동사 | 13/30 | 15/22 | 28/52 | 53 |
| 8 | 동사 | 동사의 수일치 | 15/30 | 16/22 | 31/52 | 59 |
| | 전치사 | 전치사 | 6/30 | 6/22 | 12/52 | 23 |
| | 첨가 | 불필요한 부분 첨가 | 4/30 | 4/22 | 8/52 | 15 |
| 9 | 동사 | 태 | 19/30 | 22/22 | 41/52 | 78 |

| | | | | | | |
|----|-----|------------|-------|-------|-------|----|
| | 전치사 | 전치사 | 17/30 | 22/22 | 39/52 | 75 |
| | 명사 | 명사 | 3/30 | 9/22 | 12/52 | 23 |
| | 첨가 | 불필요한 부분 첨가 | 2/30 | 1/22 | 3/52 | 5 |
| | 어휘 | 어휘 | 9/30 | 15/22 | 24/52 | 46 |
| 10 | 동사 | 동사 | 6/30 | 15/22 | 21/52 | 40 |
| 11 | 동사 | 현재완료 | 11/30 | 18/22 | 29/52 | 55 |
| | 전치사 | 전치사 | 11/30 | 11/22 | 22/52 | 42 |
| | 첨가 | 불필요한 부분 첨가 | 2/30 | 4/22 | 6/52 | 11 |
| 12 | 동명사 | 동명사의 형태 | 23/30 | 17/22 | 40/52 | 76 |
| | 첨가 | 불필요한 부분 첨가 | 19/30 | 15/22 | 34/52 | 65 |
| | 동사 | 동사 | 15/30 | 20/22 | 35/52 | 67 |
| | 어휘 | 어휘 | 7/30 | 8/22 | 15/52 | 28 |
| 13 | 동사 | 동사 | 13/30 | 9/22 | 22/52 | 42 |
| | 형용사 | 형용사 | 1/30 | 0/22 | 1/52 | 1 |
| 14 | 동사 | 동사 | 16/30 | 16/22 | 32/52 | 67 |
| | 형용사 | 형용사 | 7/30 | 9/22 | 16/52 | 30 |
| | 첨가 | 불필요한 부분 첨가 | 3/30 | 1/22 | 4/52 | 7 |
| | 어순 | 어순 | 12/30 | 11/22 | 23/52 | 44 |
| 15 | 동사 | 동사 | 2/30 | 1/22 | 3/52 | 5 |
| | 어순 | 어순 | 4/30 | 4/22 | 8/52 | 15 |
| 16 | 동사 | 동사 | 15/30 | 7/22 | 22/52 | 42 |
| | 첨가 | 동사 | 1/30 | 5/22 | 6/52 | 11 |
| | 전치사 | 전치사 | 9/30 | 8/22 | 17/52 | 32 |
| 17 | 동사 | 동사 | 5/30 | 4/22 | 9/52 | 17 |
| | 전치사 | 전치사 | 3/30 | 8/22 | 11/52 | 21 |
| | 첨가 | 불필요한 부분 첨가 | 0/30 | 5/22 | 5/52 | 9 |
| 18 | 동사 | 동사의 과거형 | 24/30 | 21/22 | 45/52 | 86 |
| | 첨가 | 불필요한 부분 첨가 | 1/30 | 2/22 | 3/52 | 5 |
| 19 | 형용사 | 형용사 | 8/30 | 7/22 | 15/52 | 28 |
| | 동사 | 동사 | 5/30 | 11/22 | 16/52 | 30 |
| | 첨가 | 불필요한 부분 첨가 | 4/30 | 3/22 | 7/52 | 13 |

| | | | | | | |
|----|-----|------------|-------|-------|-------|----|
| 20 | 동사 | 동사 | 2/30 | 1/22 | 3/52 | 5 |
| 21 | 동사 | 동사의 과거형 | 18/30 | 17/22 | 35/52 | 67 |
| | 형용사 | 형용사 | 0/30 | 1/22 | 1/52 | 1 |
| 22 | 동사 | 동사 | 22/30 | 22/22 | 44/52 | 84 |
| 23 | 동사 | 동사 | 10/30 | 12/22 | 22/52 | 42 |
| | 어휘 | 어휘 | 4/30 | 7/22 | 11/52 | 21 |
| | 첨가 | 불필요한 부분 첨가 | 5/30 | 3/22 | 8/52 | 15 |
| | 전치사 | 전치사 | 10/30 | 7/22 | 17/52 | 32 |
| 24 | 동사 | 동사 | 20/30 | 20/22 | 40/52 | 76 |
| | 첨가 | 불필요한 부분 첨가 | 1/30 | 0/22 | 1/52 | 1 |
| 25 | 전치사 | 전치사 | 11/30 | 16/22 | 27/52 | 51 |
| | 동사 | 동사 | 6/30 | 7/22 | 13/52 | 25 |
| | 첨가 | 불필요한 부분 첨가 | 6/30 | 3/22 | 9/52 | 17 |
| 26 | 어휘 | 어휘 | 3/30 | 5/22 | 8/52 | 15 |
| | 동사 | 동사 | 5/30 | 7/22 | 12/52 | 23 |
| 27 | 동사 | 동사의 과거형 | 17/30 | 13/22 | 30/52 | 57 |
| 28 | 명사 | 명령문의 동사 | 3/30 | 7/22 | 10/52 | 19 |

위의 표와 같이 영작부분에 있어서의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문제에서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해당되는 오류항목을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총 오류수는 1257였고 동사와 전치사에서 오류가 두드러졌다. 이는 동사의 경우 수일치, 시제, 태, to부정사, 동명사 등 다양한 규칙에 대해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목표어 안에서의 다양한 규칙으로 인해 적절한 전치사 사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6>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분석표

| 문항번호 | 평가항목 | 오류항목 | 중3 오류수 | 고1 오류수 | 총오류 수 | 오류율 |
|------|------|------------|-----------|-----------|----------|-----|
| 2 | 어순 | 어순 | 5/30 | 4/22 | 9/52 | 17 |
| 3 | 어순 | 어순 | 5/30 | 4/22 | 9/52 | 17 |
| 4 | 관사 | 관사 | 7/30 | 11/22 | 18/52 | 34 |
| 5 | 어순 | 어순 | 7/30 | 7/22 | 14/52 | 26 |
| 6 | 어순 | 어순 | 5/30 | 6/22 | 11/52 | 21 |
| 7 | 어순 | 어순 | 0/30 | 1/22 | 1/52 | 1 |
| | 명사 | 명사의 복수형 | 12/30 | 19/22 | 31/52 | 59 |
| 8 | 어순 | 어순 | 11/30 | 9/22 | 20/52 | 38 |
| 9 | 관사 | 관사 | 13/30 | 10/22 | 23/52 | 44 |
| | 어순 | 어순 | 5/30 | 5/22 | 10/52 | 19 |
| 10 | 명사 | 명사의 복수형 | 17/30 | 18/22 | 25/52 | 48 |
| | 어순 | 어순 | 2/30 | 7/22 | 9/52 | 17 |
| 11 | 어순 | 어순 | 3/30 | 7/22 | 10/52 | 19 |
| 12 | 어순 | 어순 | 17/30 | 5/22 | 22/52 | 42 |
| 13 | 첨가 | 불필요한 부분 첨가 | 11/30 | 5/22 | 16/52 | 30 |
| | 어순 | 어순 | 1/30 | 1/22 | 2/52 | 3 |
| 14 | 명사 | 명사의 복수형 | 15/30 | 18/22 | 33/52 | 63 |
| 15 | 어휘 | 어휘 | 21/30 | 17/22 | 38/52 | 73 |
| 16 | 관사 | 관사 | 12/30 | 9/22 | 21/52 | 40 |
| | 어순 | 어순 | 1/30 | 1/22 | 2/52 | 3 |
| 18 | 관사 | 관사 | 12/30 | 6/22 | 18/52 | 34 |
| 19 | 어순 | 어순 | 1/30 | 2/22 | 3/52 | 5 |
| 20 | 명사 | 명사의 복수형 | 19/30 | 21/22 | 40/52 | 76 |
| | 어순 | 어순 | 0/30 | 1/22 | 1/52 | 1 |
| 21 | 어순 | 어순 | 4/30 | 1/22 | 5/52 | 9 |

| | | | | | | |
|----|-----|------------|-------|-------|-------|----|
| 22 | 소유격 | 소유격 | 15/30 | 16/22 | 31/52 | 59 |
| | 어순 | 어순 | 22/30 | 20/22 | 42/52 | 80 |
| 23 | 어순 | 어순 | 3/30 | 6/22 | 9/52 | 17 |
| | 관사 | 관사 | 8/30 | 10/22 | 18/52 | 34 |
| 24 | 어순 | 어순 | 3/30 | 6/22 | 9/52 | 17 |
| 25 | 어순 | 어순 | 7/30 | 12/22 | 19/52 | 36 |
| 27 | 첨가 | 불필요한 부분 첨가 | 6/30 | 3/22 | 9/52 | 17 |
| | 관사 | 관사 | 9/30 | 11/22 | 20/52 | 38 |
| | 어순 | 어순 | 0/30 | 2/22 | 2/52 | 3 |
| 28 | 명사 | 명사의 복수형 | 13/30 | 18/22 | 31/52 | 59 |
| | 소유격 | 소유격 | 10/30 | 11/22 | 21/52 | 40 |
| | 어순 | 어순 | 2/30 | 3/22 | 5/52 | 9 |

위의 표와 같이 영작 부분에서의 모국어의 간섭에 의한 오류에 대해 살펴본다. 분석결과 총607개의 오류가 나왔으며 어순과 명사의 복수형, 관사 부분에서의 오류가 두드러졌다. 어순의 경우 우리말과 영어에서의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해 어순에 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명사의 복수형에서의 오류는 우리말에서는 복수를 뜻하는 경우에도 단수로 말하기 쉽기 때문에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해 복수형을 쓰지 않고 단수형을 쓰는 오류를 하기 쉬우며 관사의 오류의 경우 우리말에서 관사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관사를 생략하기 쉽다. 소유격에서의 오류의 경우 우리말에선 소유격을 생략해서 말하는 경향으로 인한 모국어의 간섭현상에서 오는 오류이다.

3.3. 빈칸문제에 나타난 오류 분석

3.3.1. 빈칸문제의 오류 분석 방법과 사용한 문항

본 연구는 빈칸 채우기로 이루어져있으며 영작과는 다르게 측정하려는 문법적인 항목을 미리 정해놓고 그 항목의 오류 여부를 알아보았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는 문제로 문제 옆에 힌트를 제시한 문제도 있으며 빈칸에 들어갈 말의 한국어 번역 부분에 밑줄을 그어 학생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였다. 이는 철자에 의한 오류를 막고 오답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답을 적지 않으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통계 결과는 소수점을 버리고 계산하였다.

사용한 문항은 7차 교육과정의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 High school English 교사용 지도서, Middle school English 교사용 지도서, Grammar in use intermediate과 Basic grammar in use, 맨투맨 기본 문법서 등의 내용 중에서 추출한 36개의 문장들이다.

<표37> 빈칸문제에서 사용한 문항

| | 문항 | 모범답 |
|---|--|--|
| 1 | Tom은 <u>어젯밤</u> 어떤 남자에게 돈을 빼앗겼다. | Tom was robbed by a man (last) night. |
| 2 | 잔잔한 강은 물이 <u>깊게</u> 흐른다. (deep, deeply 중에 선택) | Still waters run (deep). |
| 3 | 약 <u>2주가</u> 걸립니다. (week) | It takes about 2 (weeks). |
| 4 | 너는 어디에 너의 <u>가구들을</u> 두었니? (furniture) | Where are you going to put all your (furniture)? |

| | | |
|----|---|--|
| 5 | 커피 <u>쥘</u> 드시겠어요? (some 과 any 중에 선택) | Will you have (some) coffee? |
| 6 | Tom은 <u>의자</u> 에 앉았다.(chair) | Tom sat down on (a chair). |
| 7 | <u>아침으로</u> 무엇을 먹었니? (breakfast) | What did you have for (breakfast)? |
| 8 | 우리는 돈을 <u>많이</u> 썼어. (many나 much중에 선택) | We spent (much) money. |
| 9 | 그녀는 <u>무언가 달콤한</u> 것을 원한다. (sweet, something 둘 다 써서 배열함) | She wants (something sweet). |
| 10 | 내 생일은 <u>7월</u> 이야(July). | My birthday is (in July). |
| 11 | 우리는 그 사안에 대해 <u>토론했다</u> . (discuss) | We (discussed) the issue. |
| 12 | 나는 그 소년이 이 울타리에 <u>무엇을</u> 했는지 알고 있다. | I know (what) the boy did to the fence. |
| 13 | 나는 한 남자를 만났는데 <u>그의</u> 누이가 널 안대. | I met a man (whose) sister knows you. |
| 14 | 그것은 살아있는 <u>인간의</u> 얼굴 같았다. (alive, man 둘 다 써서 배열함) | It seemed the face of a (man alive). |
| 15 | <u>몇 시인지</u> 아니? (what, time, is, it 을 모두 넣어 배열함) | Do you know (what time it is)? |
| 16 | 그는 이곳으로 이사 온 이후 영어를 <u>가르쳐왔다</u> .(teach) | He (has taught) English since he moved here. |
| 17 | 이것에 대해 <u>어떻게</u> 생각하세요? | (What) do you think of this? |
| 18 | 이 펜은 잘 <u>써진다</u> . (write) | This pen (writes) well. |
| 19 | 그녀는 공원에서 <u>우연히</u> 그를 만났다. (happen) | It (happened) that she met him in the park. |
| 20 | 너는 내가 의미하는 <u>바</u> 를 알겠니? | Do you know (what) I mean? |

| | | |
|----|---|---|
| 21 | 나는 노래하는 새들의 소리를 <u>듣는</u> 중이었다. (listen과 hear중에 선택) | I was (listening) to the singing birds. |
| 22 | 나의 오빠(형)은 나보다 <u>훨씬</u> 나이가 많다. | My brother is (much외 even, still, a lot, far) older than me. |
| 23 | 우리가 지금 떠나지 <u>않는다면</u> , 우리는 늦게 될 거야. (if나 unless중에 선택) | (If) we don't leave now, we'll be late. |
| 24 | 너는 거기에 가지 <u>않았지</u> , 그렇지? 아니, 갔었어. (yes나 no중에 선택) | You didn't go there, did you? (No), I did. |
| 25 | 내가 너의 자전거를 <u>빌릴</u> 수 있을까? (borrow 나 lend중에 선택) | Can I (borrow) your bicycle? |
| 26 | 우리들은 내일 <u>비가 온다면</u> 농장에 가지 <u>않을</u> 거야. (rain) | We will not go to the farm if it (rains) tomorrow. |
| 27 | 만일 내가 <u>백만장자</u> 라면(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사지 <u>않겠다</u> . | If I (were) a millionaire, I would not buy it. |
| 28 | 이리 와서 <u>내 옆에</u> 앉아요. | Come and sit by (me). |
| 29 | <u>유감스럽게도</u> , 그가 시험에 <u>합격하지</u> 못했다고 <u>말씀드려야</u> 겠습니다.(say) | I regret (to say) that he didn't pass the examination. |
| 30 | 그는 소설 <u>읽는</u> 것을 즐긴다. (read) | He enjoys (reading) a novel. |
| 31 | <u>그와 그의 동생</u> 둘 다 아직 살아 있다. | Both he (and) his brother are still alive. |
| 32 | 이것은 내가 문제를 풀었던 <u>방법</u> 이다. | This is (how) I solved the problem. |
| 33 | 사람들은 게임이 시작되었을 때 <u>흥분</u> 되었다. (excite) | People (were excited) when the game started. |
| 34 | 그는 늘 일찍 <u>일어나곤</u> 했다. (used to) | He (used to get) up early. |
| 35 | 그가 <u>부자</u> 라는 것은 사실이다. | It is true (that) he is rich. |
| 36 | 나는 그의 연설을 듣고 <u>지루</u> 해졌다. (boring과 bored 중에 선택) | I was (bored) to hear his speech |

3.3.2. 각 문항별 오류 분석

1) 어휘의 관용적 표현

<표38> 문항1의 모국어 간섭현상에 의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12 | 18 | 60% | 11 | 11 | 50% |
| 1 | Tom은 <u>어젯밤</u> 어떤 남자에게 돈을 빼앗겼다. Tom was robbed by a man (last) night.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yesterday/after | | | yesterday/tonight/to/money | | |

이 문제는 ‘어젯밤’을 표현할 때 쓰는 ‘last night’이라는 표현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로 우리말과 영어의 표현이 꼭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우리말의 의미 그대로 옮겨 쓰기 쉽다. 오답률은 중3이 60%, 고1이 50%로 반 이상이 정답을 썼으며 오답의 대부분은 ‘yesterday’로 ‘last night’의 표현을 모르고 있으며 한국어를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제’라는 말을 그대로 옮겨서 사용한 오류로 모국어의 간섭현상에서 오는 오류로 볼 수 있다.

2) 부사의 형태

<표39> 문항2의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서 오는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5 | 25 | 83% | 4 | 18 | 81% |
| 2 | 잔잔한 강은 물이 깊게 흐른다. (deep, deeply 중에 선택) Still waters run (deep).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deeply | | | deeply | | |

부사에 관한 오류문제로 ‘deep’과 ‘deeply’중 선택하게 하여 적절한 부사어휘를 고르는 문제이다. 오답률은 중3, 고1 각 각 83%, 81%로 비슷한 오답률을 나타내었으며 오답률이 높아서 학생들이 이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deep’은 명사, 형용사, 부사로 다 쓰이며 ‘deeply’는 부사로만 쓰인다. ‘deep’이 형용사만 있고 부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오답으로 ‘deeply’를 적어주었다. 이는 부사에서 나타나는 ‘-ly’의 목표어의 규칙을 확대한 오류로 볼 수 있다.

3) 명사의 수일치

<표40> 문항3의 모국어 간섭현상에 의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17 | 13 | 43% | 14 | 8 | 36% |
| 3 | 약 <u>2주가</u> 걸립니다. (week) It takes about 2 (weeks).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week/weekend/about two week | | | week/weekend/weekly | | |

명사의 수일치에 관한 오류로 중3의 오답률은 43%, 고1의 오답률은 36%로 비슷했으며 다른 문제에 비해 낮은 오답률을 보였다. 가장 많이 나온 오답은 'week'였다. 우리말로 '2주'라고 해서 복수를 써서 '2주들'이라고 하지 않는데 영어는 숫자 '2'랑 쓰이면 'weeks'가 되는 것을 염두 해두지 않고 우리말 그대로 옮겨서 'week'라고 쓰는 모국어 간섭현상에 의한 오류였다. 또한 오답 중에는 '주말'이라는 뜻인 'weekend'라고 쓴 것이 있었으며, 이는 'week'와 'weekend'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4) 불가산 명사

<표41> 문항 4의 모국어 간섭현상에 의한 오류
/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11 | 19 | 63% | 10 | 12 | 54% |
| 4 | 너는 어디에 너의 <u>가구들을</u> 두었니? (furniture) Where are you going to put all your (furniture)?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furnitures/furnitured | | | furnitures/furnitured | | |

이 문제는 불가산명사에 관한 오류를 알아보는 문제로 오답률은 중3이 63%, 고1이 54%로 반 이상이 정답을 썼으며 오답 중 대부분은 ‘funitures’라고 복수로 쓴 것이 차지하였다. ‘furniture’가 불가산 명사임을 알지 못하고 우리 말 번역 그대로 옮겨와서 ‘-s’를 붙여 복수를 만들었으며 모국어 간섭현상에서 오는 오류로 볼 수 있다. 또한 목표어의 보통명사에서 ‘-s’를 붙여 복수를 만드는 규칙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그 외 ‘furnitured’라고 쓴 오답이 중3, 고1 모두 나타났는데 이는 ‘furniture’를 동사로 보고 ‘-d’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5) 형용사 some과 any의 구분

<표42> 문항 5의 목표어의 규칙 확대로 인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21 | 9 | 30% | 17 | 5 | 22% |
| 5 | 커피 좀 드시겠어요? (some과 any 중에 선택) | | | | | |
| | Will you have (some) coffee?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any | | | any | | |

이 문제는 'some'과 'any'중에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문제로 오답률은 중3이 30%, 고1이 22%로 다른 문제에 비해서 낮은 오답률을 보였으며 'any'를 쓴 학생들은 의문문에 'any'를 쓴다는 규칙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목표어의 규칙 확대로 인한 오류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정문, 의문문, 조건절에는 'any'를 쓰지만 의문문에서 권유를 나타내거나 'yes'의 답을 예기하는 경우 또는 조건절에서 긍정적 기대나 예측을 내포하는 경우에는 'some'을 쓴다.

6) 관사

<표43> 문항 6의 모국어 간접현상에 의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17 | 13 | 43% | 5 | 17 | 77% |
| 6 | Tom은 의자에 앉았다.(chair) Tom sat down on (a chair).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chair/chairs | | | chair/chairs | | |

이 문제는 관사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로 영어에서는 보통명사 앞에 관사를 붙이는 반면 우리말에는 보통 관사를 붙이지 않고 쓰게 되는데서 생기는 오류로 모국어의 간접현상으로 인한 오류이다. 관사를 넣지 않은 것이 가장 많이 오답을 차지했으며 복수로 쓴 경우도 있었다. 오답률은 중3이 43%, 고1이 77%였으며 고1 집단이 중3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오답을 썼다. 이를 보아 꼭 학년이 더 높다고 해서 더 많은 문법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중3집단에서는 하위권 학생들이 없다는 것도 요인이 될 수 있겠다.

7) 불가산 명사

<표44> 문항 7의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25 | 5 | 16% | 17 | 5 | 22% |
| 7 | 아침으로 무엇을 먹었니? (breakfast) What did you have for (breakfast)?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the breakfast/breakfasted | | | the breakfast/a breakfast/ eat breakfast | | |

불가산 명사의 관사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로 식사나, 스포츠, 학과, 병등을 말할 때는 관례적으로 그 앞에 부정관사 'a'나 정관사 'the'를 붙이지 않는데 보통명사앞에 관사를 붙이는 목표어의 규칙을 확대 적용하여 생기는 오류이다. 오답률은 중3이 16%, 고1이 22%로 낮은 편이었으며 오답으로는 'the'나 'a'와 같은 관사를 붙이는 오류가 나왔다. 다른 문제에 비해 오답률이 낮았는데 이는 'breakfast' 앞은 무관사라는 생각에서 정답을 썼다가보다는 'breakfast'의 철자오류를 막기 위한 힌트로 제시된 'breakfast'를 그대로 쓴 학생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8) 형용사 many와 much의 구분

<표45> 문항 8의 모국어 간섭현상에 의한 오류
/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25 | 5 | 16% | 17 | 5 | 22% |
| 8 | 우리는 돈을 <u>많이</u> 썼어. (many나 much중에 선택) We spent (much) money.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many | | | many | | |

이 문제는 수량형용사 ‘many’와 ‘much’의 쓰임에 관해 묻는 문제로 우리말로써는 둘 다 ‘많이’라고 표현하지만 영어에서는 수와 양에 따라 표현을 달리 한다. 그런 점에서 ‘many’라고 오답을 쓴 경우 모국어의 간섭 현상으로 인한 오류로 볼 수 있다. 또한 목표어 안에서 ‘many’와 ‘much’의 규칙을 혼동해서 쓴 오류로도 볼 수 있겠다. 오답률은 중3이 16%, 고1이 22%로 높은 정답률을 나타냈으며 ‘many’와 ‘much’의 쓰임에 대해 다른 문제들에 비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9) 어순의 예외

<표46> 문항 9의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21 | 9 | 30% | 10 | 12 | 54% |
| 9 | 그녀는 <u>무언가</u> <u>달콤한</u> 것을 원한다. (sweet, something 둘 다 써서 배열) She wants (something sweet). | | | | | |
| | 오답 내용 | | | 오답내용 | | |
| | to something sweet/something | | | sweet something/something to sweet | | |

이 문제는 형용사의 위치와 어순을 묻는 문제로 형용사는 원칙적으로 명사 앞에서 명사를 직접 수식하지만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형용사가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명사를 수식할 때 후위수식을 하며 학생들이 이 어순을 알고 있는지와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서 명사를 전위수식하는 규칙을 확대 적용하여 오류를 범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답률은 중3이 30%, 고1이 54%였으며 고1의 오답 중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두 단어의 자리를 바꾼 'sweet something'이었으며 목표어의 일반적인 형용사의 어순을 확대 적용하였다. 'to something sweet'이란 오답을 보면 형용사의 위치는 맞았으나 'to'를 첨가하였는데 이는 평소에 'want to'라는 표현을 보고 이 규칙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10) 적절한 전치사

<표47> 문항 10의 모국어의 간접현상에 의한 오류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2 | 28 | 93% | 2 | 20 | 90% |
| 10 | 내 생일은 <u>7월이야</u> (July). My birthday is (in July).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July/on July/Julys/in the July | | | July/on July | | |

이 문제는 적절한 전치사를 넣는 오류로 전치사에 관한 오류는 우리말 번역에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영어로 옮길 때 이를 생략하는 오류와 다른 전치사를 쓰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중3의 오답률이 93%, 고1의 오답률이 90%로 비슷했으며 높은 오답률을 보여서 학생들이 이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오답은 'July'가 차지했으며 앞에 전치사를 쓰지 않아서 모국어의 간접으로 인한 오류로 볼 수 있다. 또한 'on'을 쓴 경우는 달이나 연도는 'in'을 쓰지만 날짜나 요일은 'on'을 쓰는 것, 'on July 17'처럼 달과 날짜가 함께 있을 때 'on'이 쓰이는 목표어의 규칙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오답인 'in the July'의 경우도 명사 앞에 관사를 붙이는 목표어의 규칙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11) 동사

<표48> 문항 11의 모국어 간섭현상에 의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9 | 21 | 70% | 5 | 17 | 77% |
| 11 | 우리는 그 사안에 대해 <u>토론했다</u> . (discuss) We (discussed) the issue.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discusses/discussing/discuss /discuss about /was discuss/discuss to | | | discuss/discussed about /are discuss/have discuss | | |

이 문제는 타동사 ‘discuss’의 이해와 시제에 관한 이해를 묻는 문제로 타동사는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바로 가질 수 있다. 그런데 한국말로 생각하였을 때 꼭 전치사가 필요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쉽다. 이는 ‘-에 대해’란 말이 한국어 번역에 들어갈 경우 ‘about’을 쓰는 모국어 간섭에 의한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답률은 중3이 70%, 고1이 77%였으며 시제를 지키지 않고 ‘discuss’라고 쓴 오답이 가장 많아 학생들이 시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힌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옮겨 쓴 학생도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 다른 오답인 ‘discuss about’은 타동사인 ‘discuss’를 자동사로 생각하여 쓴 오류로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사로 생각하여 전치사를 붙이기 쉬운 동사에는 ‘mention’을 ‘mention about’, ‘explain’을 ‘explain about’, ‘reach’를 ‘reach to’, ‘contact’를 ‘contact to’로 쓰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12) 접속사

<표49> 문항 12의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21 | 9 | 30% | 14 | 8 | 36% |
| 12 | 나는 그 소년이 이 울타리에 <u>무엇을</u> 했는지 알고 있다. I know (what) the boy did to the fence.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that/what to | | | something /what to do/whatever | | |

이 문제는 적절한 관계대명사를 넣는 문제로 오답률은 중3이 30%, 고1이 36%였으며 오답 중 가장 많이 나온 것은 'that'과 'whatever'였다. 이는 'what', 'whatever', 'that' 등의 쓰임의 차이에 대해 혼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what'과 'that'은 혼동하기 쉬운데 둘 다 명사절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what'은 불완전 문장 구조를 이끌며 'that'은 완전한 문장 구조를 이끈다. 또한 'what to do'라고 쓴 오답은 문제의 질문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착안하여 그대로 옮기려고 하다가 생긴 오류로 볼 수 있다.

13) 접속사

<표50> 문항 13의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1 | 1 | 29 | 96% | 0 | 22 | 100% |
| 13 | 나는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의 누이가 널 안대. I met a man (whose) sister knows you.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his/said his/who/who is | | | his/him/he | | |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로 중3의 오답률은 96%, 고1의 오답률은 100%로 높은 오답률을 나타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쓰지 않고 대부분 소유격인 ‘his’를 썼다. 우리말에는 없는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오류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관계 대명사인 ‘who’를 쓰거나 ‘him’, ‘his’와 같은 다른 대명사를 적은 오답도 있어 관계 대명사 안에서의 혼동 뿐 아니라 관계대명사와 대명사의 차이에 대해서도 혼동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 어순의 예외

<표51> 문항 14의 목표어의 규칙 확대로 인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7 | 23 | 76% | 1 | 21 | 95% |
| 14 | <p>그것은 <u>살아있는 인간의</u> 얼굴 같았다. (alive, man 둘 다 써서 배열함) It seemed the face of a (man alive).</p>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alive man/to alive man /man to alive /man alived | | | alive man/alive men /man in alive/alive man's/alive is man/alive | | |

형용사의 어순을 묻는 문제로 접두어 ‘a-’로 시작되는 형용사 ‘alive’, ‘afraid’, ‘awake’ 등의 형용사는 서술용법에만 쓰이는데 서술용법에만 쓰이는 ‘alive’가 명사를 수식할 경우에는 명사 바로 뒤에 위치하게 된다. 하지만 학생들은 형용사는 명사 앞에 위치한다는 규칙을 확대 적용하여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오답률은 중3이 76%, 고1이 95%로 특히 고1에서 오답률이 높았으며 대부분 오답으로 ‘alive man’을 썼다.

15) 간접의문문의 어순

<표52> 문항 15의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4 | 26 | 86% | 5 | 17 | 77% |
| 15 | 몇 시인지 아니? (what, time, is, it 을 모두 넣어 배열함) Do you know (what time it is)?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what time is it/what is time it | | |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now/ is what time is | | |

간접의문문의 어순에 관한 문제로 직접의문문의 어순을 쓰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중3의 오답률은 86%, 고1의 오답률은 77%로 오류의 대부분이 ‘what time is it’이었으며 간접의문문에서는 어순을 직접의문문의 어순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오류를 보였다. 이는 목표어의 직접의문문 규칙을 확대 적용하여 간접의문문에도 적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16) 현재완료시제

<표53> 문항 16의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3 | 27 | 90% | 0 | 22 | 100% |
| 16 | 그는 이곳으로 이사 온 이후 영어를 가르쳐왔다.(teach) He (has taught) English since he moved here.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teached/teaches/teach /have taught/has been taught/ have been thought/has been taught had thought/had taught have taught/thought be teaching/teacts theach/has been tough | | | teach/teaching/has been taught has been taught/has teaching have been taught/have teach have teaching/tought/teaches touch/taught | | |

이 문제는 현재완료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로 중3의 오답률이 90%, 고1의 오답률이 100%로 높은 오답률을 나타냈다. 매우 다양한 오답이 나왔으며 그 오답들 중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단순현재시제인 'teach'로 이는 주어 'he'이기 때문에 수일치에서도 오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거시제가 'taught'임에도 불구하고 'tought', 'touch', 'teached'라고 쓴 것은 불규칙동사의

과거형을 알지 못하는데서 오는 오류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완료의 형태를 알지 못할뿐더러 시제를 지키지 않고 수일치를 시키지 않았으며 동사의 불규칙과거형의 형태를 알지 못하는데서 오는 오류라고 볼 수 있다.

17) 의문사의 관용적 표현

<표54> 문항 17의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8 | 22 | 73% | 9 | 13 | 59% |
| 17 | 이것에 대해 <u>어떻게</u> 생각하세요? (What) do you think of this?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how/how about | | | how | | |

우리말 번역 그대로 영어에 적용하거나 영어에서의 관용적 표현을 모르는데서 생기는 오류를 알아보는 문제이다. 오답률은 중3이 73%, 고1이 59%였으며 오답 중 대부분은 우리말로 ‘어떻게’에 해당되는 ‘how’를 적었다. ‘How do you think’는 우리말로 생각하면 맞을 것 같지만 이는 생각하는 방법을 묻는 말로 ‘What’으로 써야 한다. 그 이외에 ‘how about’이라고 적은 오답은 ‘How about you?’라는 표현을 평소에 보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18) 태

<표55> 문항 18의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3 | 27 | 90% | 2 | 20 | 90% |
| 18 | 이 펜은 잘 <u>써</u> 진다. (write) This pen (writes) well.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write//written /writing /be written /is written/is wrote/to write /writed | | | write/writen/writed/written /writing /is wrote/is written/is writed /was writen | | |

동사의 태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로 영어에서 사물이 주어일 때는 일반적으로 동사를 수동태로 쓰고, 사람이 주어일 때는 동사를 능동태로 쓰는 규칙을 확대 적용하는데서 오는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sell’, ‘close’, ‘open’, ‘start’와 같은 동사들은 1형식으로 수동의 의미를 가지면서 능동태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오답률은 중3, 고1 각각 90%, 91%로 높은 편이었으며 다양한 오답이 나왔다. 가장 많이 나온 것은 ‘write’로 수일치를 시키지 않은 것이었고 과거분사형인 ‘written’이라고 쓰려고 하였으나 철자에서 오류를 보이는 ‘writen’과 같은 단어도 많이 발견되었다.

19) 자동사

<표56> 문항 19의 모국어간섭 현상에 의한 오류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9 | 21 | 70% | 4 | 18 | 81% |
| 19 | 그녀는 공원에서 <u>우연히</u> 그를 만났다. (happen) It (happened) that she met him in the park.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happen/happens /is happen/happened /hapennly/happen to/happening | | | happen/happens /happened to/go/happier | | |

‘happen’이 자동사임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 오답의 대부분이 ‘happen’이라고 썼고 정답인 과거형으로 시제를 일치시키지 않았을 뿐더러 ‘happen’이라고 오답을 쓴 경우에도 ‘happens’라고 써야 수일치에 맞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시제뿐만 아니라 수일치에서도 오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happen to’라는 오답도 많이 적었는데 이는 평소에 ‘happen to’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람주어+happen’ 다음에는 부정사를, ‘It happens’ 다음에는 that절을 쓰는데 ‘happen to부정사’의 규칙만 알고 목표어의 이 규칙을 확대 적용하여 ‘happen that절’이 쓰이는 경우까지만 ‘happen to부정사’를 쓰려는 오류로 볼 수 있다. 또한 ‘is happen’이라고 쓴 오답의 경우 비록 뒤에 과거분사 형태가 아니지만 수동태 형태를 의도한 오답으로 한국말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happen’을 생각하는 경우 이런 오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happen’은 자동사로 쓰이며 수동태를 만들 수 없으며 영어의 자동사, 타동사의 구분은 한국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의 하나이다.

20) 접속사

<표57> 문항 20의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16 | 14 | 46% | 8 | 14 | 63% |
| 20 | 너는 내가 의미하는 <u>바를</u> 알겠니? Do you know (what) I mean?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that/how/understand | | | see/it/mean/bar | | |

오답률은 중3이 46%, 고1이 63%로 높지 않았으며 오답 중 대부분이 아예 몰라서 답을 적지 않은 경우였다. 중3집단에서의 오답을 보면 ‘that’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that’과 ‘what’의 쓰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how’를 쓴 학생도 있었으며 ‘know’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를 중복해서 쓴 ‘understand’도 있었다. 고1에서의 오답은 다른 관계사는 없었고 동사를 중복해서 ‘see’, ‘mean’을 썼으며 ‘see’라고 쓴 학생은 ‘see’에 ‘알다’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쓴 것으로 보인다. ‘it’을 쓴 학생은 한국어 번역에 제시된 ‘바를’에 상응하는 우리말을 찾다가 ‘그것’을 뜻하는 ‘it’을 쓴 것으로 보여 진다.

21) 진행형 및 'listen'과 'hear'의 구분

<표58> 문항 21의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5 | 25 | 83% | 3 | 19 | 86% |
| 21 | <p>나는 노래하는 새들의 소리를 듣는 중이었다. (listen과 hear중에 선택) I was (listening) to the singing birds.</p>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listen/hear/hearing/listened | | | listen/hear/hearing/heard | | |

이 문제는 진행형을 쓸 수 있는지의 여부와 'listening'과 'hearing'의 차이점에 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이다. 오답 중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이 'listen'으로 시제를 진행형으로 쓰지 않고 단순현재를 쓴 것이었다. 이는 학생들이 시제 부분에서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hearing'과 'listening'에는 차이점이 있는데 'hearing'은 비자발적인 것으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들리는 것이고 'listening'은 자발적인 것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다. 'listen'이라고 쓴 학생들은 'listening'과 'hearing'의 차이점은 알고 있으나 시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2) 비교급 강조부사

<표59> 문항 22의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10 | 20 | 66% | 8 | 14 | 63% |
| 22 | 나의 오빠(형)은 나보다 <u>훨씬</u> 나이가 많다. My brother is (much외 even, still, a lot, far) older than me.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very/better/more | | | more/better/very | | |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로 ‘much’, ‘even’, ‘still’, ‘a lot’, ‘far’ 등은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을 강조하는 어구로서 ‘훨씬’, ‘더욱’, ‘한층’의 뜻으로 쓰인다. 오답을 보면 ‘very’, ‘better’, ‘more’를 많이 썼는데 ‘very’는 원급의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여 강조하는데 비교급을 생각하지 않고 ‘훨씬’이라는 의미만 생각하여 쓴 것으로 보이며, ‘better’나 ‘more’를 쓴 학생들은 ‘older’가 이미 문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답들을 썼는데 이는 ‘better than’, ‘more than’이라는 표현을 평소에 보고 비교급의 이 규칙들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23) 접속사 ‘if’와 ‘unless’의 구분

<표60> 문항 23의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21 | 9 | 30% | 17 | 5 | 22% |
| 23 | 우리가 지금 떠나지 <u>않는다면</u> , 우리는 늦게 될 거야. (if나 unless중에 선택) (If) we don't leave now, we'll be late.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unless | | | unless | | |

접속사 ‘if’와 ‘unless’ 중에 적절한 접속사를 넣는 문제이다. 가정법 현재는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가정을 나타내는 표현법으로 ‘if+주어+동사원형[현재시제], 주어+will/shall/can/may+동사원형’으로 나타내며 ‘만일~라면...일 것이다’와 같은 뜻을 가진다. 오답률은 중3, 고1 각각 30%, 22%로 정답률이 높은 편이었으며 ‘unless’를 쓴 학생들은 문제에 제시된 ‘않는다면’만 생각하고 문장을 끝까지 제대로 읽지 않고 ‘don’t’을 보지 못해서 ‘unless’를 썼거나 ‘unless’의 쓰임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오답을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하지 않는다면’이란 뜻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장 안에 not의 여부와 상관없이 ‘unless’를 써야 되는 줄 알고 쓴 학생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4) Yes/No 답변

<표61> 문항 24의 모국어 간섭현상에 의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19 | 11 | 36% | 13 | 9 | 40% |
| 24 | 너는 거기에 가지 않았지, 그렇지? <u>아니</u> , 갔었어. (yes나 no중에 선택) You didn't go there, did you? (No), I did.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Yes | | | Yes | | |

이 문제는 'yes/no'의 답변을 잘 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로 'yes'라고 쓴 학생들은 영어에서의 'yes/no question'에서의 답변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어에서는 긍정문으로 묻든 부정문으로 묻든 대답하는 방식은 같은데 이 문제에서 갔다고 대답하고 싶으면 'yes'를, 가지 않았으면 'no'라고 대답해야 한다. 이는 한국말과는 다른 것으로 한국말은 질문이 긍정문이나 부정문이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25) 어휘

<표62> 문항 25의 목표어의 규칙 확대로 인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18 | 12 | 40% | 12 | 10 | 45% |
| 25 | 내가 너의 자전거를 빌릴 수 있을까? (borrow 나 lend중에 선택) Can I (borrow) your bicycle?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lend | | | lend | | |

이 문제는 적절한 동사를 넣는 문제로 ‘borrow’와 ‘lend’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borrow’는 ‘다른 사람에게 빌리다’라는 뜻인데 주로 잠깐 빌릴 때 쓰이며 ‘lend’는 일정기간동안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 두 단어는 혼동하기 쉽다. 오답률은 중3이 40%, 고1이 45%로 반 이상이 정답을 써 주었다. 두 단어의 정확한 의미 차이를 모를 경우 오답인 ‘lend’를 쓴 것으로 보았다.

26) 동사의 시제

<표63> 문항 26의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4 | 26 | 86% | 3 | 19 | 86% |
| 26 | 우리들은 내일 <u>비가 온다면</u> 농장에 가지 않을 거야. (rain) We will not go to the farm if it (rains) tomorrow.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rain/raining/rain in /will rain/rainy | | | rain/raining/will rain /raining/rained | | |

이 문제는 알맞은 시제를 쓰는 문제로 내일 비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형을 학생들이 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미래형을 쓴 학생보다는 단순 현재시제인 'rain'을 적은 학생이 많았다. 'rain'으로 쓴 학생들은 조건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it'과의 수일치를 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raining'으로 오답을 쓴 경우에는 아마도 평소에 'It's raining.'이란 표현을 많이 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유명가수의 노래 제목에도 'It's raining'이란 제목이 있다. 'raining'으로 'n'을 2번 반복해서 쓴 오답도 있었는데 이는 'swimming'처럼 자음을 겹쳐 쓰는 것을 보고 이 규칙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답률은 중3, 고1이 모두 86%로 높은 편이었다.

27) 가정법

<표64> 문항 27의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8 | 22 | 73% | 6 | 16 | 72% |
| 27 | 만일 내가 백만장자라면(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사지 않겠다. If I (were) a millionaire, I would not buy it.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am/although/though/was/if /will/like/rich | | | though/even/like | | |

가정법 과거는 'If+주어+were 혹은 동사의 과거형, 주어 조동사와 과거형+동사원형'을 쓰는데 이때 'were'는 인칭과 관계없이 쓰인다. 오답률은 중3이 73%, 고1이 72%였으며 가장 많이 나온 오답은 'am', 'though', 'even'으로 'am'을 쓴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I'는 'am'과 쓰이는 것을 생각하여 인칭을 고려하여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를 나타냈다. 또 다른 오답인 'though'는 우리말 그대로 생각해서 '-일지라도'라는 의미에 맞추려고 쓴 것으로 보이며 'though'가 접속사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ven'을 쓴 학생들은 'even so'가 '비록 그렇다하더라도'란 뜻을 가지고 있고 또한 'though'의 강조형으로 'even though'가 쓰이는 것을 보고 'even'를 쓴 것으로 생각된다.

28) 대명사

<표65> 문항 28의 모국어 간섭현상에 의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13 | 17 | 56% | 17 | 5 | 22% |
| 28 | 이리 와서 <u>내</u> 옆에 앉아요. Come and sit by (me).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my/my side/next | | | my/myself/my next | | |

알맞은 대명사를 적는 문제이다. 중3의 오답률은 56%, 고1의 오답률은 22%였으며 우리말로 ‘내 옆’이라고 하면 ‘내’는 곧 ‘나의’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소유격인 ‘my’를 적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오답 중에서도 ‘my’가 가장 많이 나왔으며 ‘my self’, ‘my next’, ‘my side’ 등의 오답이 나왔는데 이 오답들의 공통점은 모두 소유격 ‘my’를 썼다는 것이다. ‘나의 옆’을 표현하려고 우리말식으로 소유격 ‘my’를 쓴 것으로 보이며 모국어 간섭으로 인한 오류로 볼 수 있겠다.

29) 부정사

<표66> 문항 29의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5 | 25 | 83% | 4 | 18 | 81% |
| 29 | <u>유감스럽게도,</u> 그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고 <u>말씀드려야겠습니다.</u> (say) I regret (to say) that he didn't pass the examination.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say/said/saying/saied/sorry | | | say/said/saying/sayed/sayed /for/sorry to say/to | | |

이 문제는 부정사와 동명사를 둘 다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는 문제로 ‘regret’은 ‘-한 것을 후회하다’라는 뜻일 경우에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고 ‘유감이지만, -을 알리다.’라는 뜻일 경우에는 부정사를 목적어를 취해 그 의미가 달라진다. 여기에서는 유감스럽다는 의미로 ‘to say’를 써줘야 한다. 오답률은 중3이 83%, 고1이 81%로 높았으며 두 집단이 비슷했다. 오답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saying’, ‘say’, ‘said’였으며 ‘saying’을 쓴 경우는 위의 두 용법의 차이를 혼동한 것으로 볼 수 있고 ‘say’나 ‘said’를 쓴 학생들은 두 용법 모두 모르고 있는 상태로 보았다. ‘say’를 쓴 학생들은 문제에 제시된 힌트를 보고 그대로 쓴 것으로 보이며 또한 ‘said’를 쓰려고 시도한 학생 중에 ‘sayed’라고 쓴 학생도 있었는데 이는 과거형을 만들 땐 보통 ‘-ed’를 붙이는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로 볼 수 있겠다.

30) 동명사

<표67> 문항 30의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11 | 19 | 63% | 11 | 11 | 50% |
| 30 | 그는 소설 <u>읽는</u> 것을 즐긴다. (read) He enjoys (reading) a novel.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read/what read/to read | | | read | | |

이 문제는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갖는 동사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이러한 동사에는 ‘suggest’, ‘recommend’, ‘consider’, ‘finish’, ‘quit’, ‘discontinue’, ‘give up’, ‘dislike’, ‘deny’, ‘avoid’, ‘deny’ 등이 있으며 동명사를 취하지 않고 to부정사나 다른 형태를 취하기 쉽다. 오답률은 중3이 63%, 고1이 50%로 반 이상이 정답을 써주었으며 오답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은 ‘read’로 이미 앞에 ‘enjoys’라는 동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를 중복해서 적었다. 학생들이 시제와 더불어 동사의 중복에 관해서도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 등위상관접속사

<표68> 문항 31의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17 | 13 | 43% | 16 | 6 | 27% |
| 31 | 그와 그의 동생 둘 다 아직 살아 있다. Both he (and) his brother are still alive.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his/she | | | or/is/go | | |

이 문제는 등위 상관접속사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로 상관접속사란 서로 연관되어서 쌍으로 붙어 다니는 접속사를 말하는 것으로 ‘both’는 ‘and’와 어울린다. 오답 중에 ‘or’, ‘is’, ‘go’가 나왔으며 ‘or’를 쓴 경우는 ‘either-or’와 혼동한 것으로 보여진다. ‘is’를 쓴 경우는 ‘he’ 뒤에 빈칸이 있으므로 주어 다음엔 동사를 써야 된다는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로 볼 수 있다.

32) 접속사

<표69> 문항 32의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5 | 25 | 83% | 3 | 19 | 86% |
| 32 | 이것은 내가 문제를 풀었던 <u>방법</u> 이다. This is (how/the way in which/the way) I solved the problem.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way/what/how to/method | | | way/ways/method/solution /why/that/happen | | |

이 문제는 방법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관한 질문이다. 이 문장은 ‘This is the way’와 ‘I solved the problem in that way’를 합쳐놓은 문장으로 ‘This is the way in which I solved the problem’이나 ‘This is how I solved the problem’으로 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행사 ‘the way’를 생략하여 ‘how’를 쓴다. 관계부사는 전치사+관계대명사 개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관계부사는 부사이기 때문에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따위가 빠져서 불완전한 구조를 이를 필요가 없으며 관계부사 뒤에는 빠진 성분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구조가 오게 된다. 오답률이 중3은 83%, 고1이 86%로 높은 편이었으며 두 집단이 비슷한 오답률을 보였다. 오답 중 대부분이 ‘way’라고 적어 앞에 관사 ‘the’를 생략하였으며 ‘what’, ‘that’의 오답도 많았다. 이를 보아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의 구분에 대해서도 혼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태

<표70> 문항 33의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1 | 29 | 96% | 0 | 22 | 100% |
| 33 | 사람들은 게임이 시작되었을 때 <u>흥분되었다</u> . (excite) People (were excited) when the game started.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excited/excite/exciting /was excited/is exciting /is excited/are excited | | | excited/exciting/excite /are excited/is excited | | |

이 문제는 태에 관한 이해를 묻는 문제로 중3의 오답률은 96%, 고1의 오답률은 100%로 매우 높은 오답률을 나타내었다. 수동형으로 써야하는데 능동형으로 쓴 'excited'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론 'excite'가 많았다. 'excited'로 쓴 경우 과거형으로 쓰는 것까지는 맞았으나 수동으로 쓰지 못했고 'excite'로 쓴 학생들은 수동 능동의 구분뿐만 아니라 시제일치 부분에서도 오류를 보였다. 또한 'exciting'으로 쓴 오답도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흥분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현재진행형을 쓰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진행형으로 쓸 경우에는 앞에 be동사를 붙여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진행형의 형태에서도 오류를 보임을 알 수 있으며 'excite'는 감정유발타동사로 사람이 흥분했다고 표현할 때는 'excited'라고 표현해야 옳다. 그 외의 오답들을 보면 수동형으로 쓰려고 시도는 하였으나 'were'를 'is'나 'are' 등으로 적어 주었다.

34) 조동사

<표71> 문항 34의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5 | 25 | 83% | 4 | 18 | 81% |
| 34 | 그는 늘 일찍 일어나곤 했다. (used to) He (used to get) up early.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used to/is used to/was used to/will used to/used to be /was used to wake | | | used to/used to got | | |

이 문제는 조동사 ‘used to’의 용법의 이해를 묻는 문제로 ‘He used to get up early.’가 ‘그는 일찍 일어나곤 했다’이지만 ‘He is used to getting up early.’는 ‘그는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하다.’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에서 의도한 것은 학생들이 이 두 패턴을 잘 구분해서 쓰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답으로 예상한 ‘used to getting’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으며 가장 많이 나온 오답은 ‘used to’인데 이는 ‘get’을 생략한 것으로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get up’에 관한 표현을 알지 못하고 못 적은 것일 수도 있기에 이를 간과할 수는 없었으며 ‘used to’를 오답처리 하였다. 하지만 문제의 의도에는 적절한 답이 될 수도 있으며 만일 이를 정답으로 처리할 경우 오답률은 원래 중3이 83%이지만 60%로 낮아지며 고1의 경우 원래 81%이지만 9%로 낮아져 특히 고1 집단의 경우 확연히 낮아짐을 알 수 있다.

35) 접속사

<표72> 문항 35의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10 | 20 | 66% | 9 | 14 | 63% |
| 35 | 그가 <u>부자</u> 라는 것은 사실이다. It is true (that) he is rich.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what/which/if/to | | | what/or/to/richer/out/rich | | |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that’으로 ‘it’은 가주어, ‘true’는 주격보어, ‘that’ 이하가 진주어로 명사절이 된다. 오답률은 중3이 66%, 고1이 63%로 두 집단의 오답률이 비슷하게 나왔으며 반 이상이 정답을 썼다. 오답 중에서는 ‘what’이 가장 많이 나왔으며 명사절 접속사 문제는 학생들이 틀리기 쉬운 오류 중 하나로 ‘that’과 ‘what’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6) 분사

<표73> 문항 36의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

| 문항 번호 | 중3 (30명) | | | 고1 (22명) | | |
|----------|---|-----|-----|----------|-----|-----|
|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정답수 | 오답수 | 오답률 |
| | 14 | 16 | 53% | 11 | 11 | 50% |
| 36 | 나는 그의 연설을 듣고 지루해졌다. (boring과 bored 중에 선택) I was (bored) to hear his speech | | | | | |
| | 오답내용 | | | 오답내용 | | |
| | boring | | | boring | | |

이 문제는 분사에 관한 이해를 묻는 문제로 분사에는 현재분사와 과거분사가 있는데 현재분사는 ‘동사원형+ing’이며 과거분사는 ‘동사원형+ed’, 또는 ‘불규칙 동사의 과거분사형’이다. 중3의 오답률은 53%, 고1의 오답률은 50%로 비슷하였으며 반 이상이 정답을 썼다. ‘boring’과 ‘bored’ 중에 선택하게 하였으며 ‘boring’을 쓴 학생들은 ‘boring’과 ‘bored’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한다고 할 수 있겠다. ‘bore’는 감정유발타동사로 ‘You are boring.’은 ‘넌 나를 따분하게 해.’란 의미이며, ‘You are bored.’는 ‘너 따분하구나.’로 쓰게 된다. 이 문제에서는 그의 연설을 듣고 지루해진 것이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이므로 ‘bored’를 쓰며 ‘boring’을 쓰려면 ‘His speech was boring.’으로 쓸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사물엔 ‘-ed’를 쓰고 사람에게겐 ‘-ing’형을 쓰는 목표어의 규칙을 확대한 오류를 범하기 쉽다. 감정유발타동사는 사람에게 ‘-ed’를 쓰고 사물에게 ‘-ing’를 쓰게 되는데 감정유발타동사에는 ‘excite’, ‘interest’ 등이 있으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의 하나이다.

3.3.3. 문법적 오류 분석

<표74> 빈칸문제의 문법적 오류분석

| | | 명사 | 형용사 | 동사 | 부사 | 전치사 | 관사 | to 부정사 | 동명사 | 접속사 | 의문사 | 어휘 | 어순 |
|--------|---------|--------|--------|---------|--------|-------|-------|--------|-------|---------|-------|--------|--------|
| 중 3 | 오류 수 | 31/120 | 10/60 | 166/300 | 43/90 | 24/30 | 10/30 | 15/30 | 12/30 | 60/210 | 16/30 | 18/60 | 43/90 |
| | 비율 | 25 | 16 | 55 | 47 | 80 | 33 | 50 | 40 | 28 | 53 | 30 | 47 |
| | 순위 | 11 | 12 | 2 | 5 | 1 | 8 | 4 | 7 | 10 | 3 | 9 | 5 |
| 고 1 | 오류 수 | 26/88 | 8/44 | 159/220 | 33/66 | 19/22 | 16/22 | 15/22 | 10/22 | 58/154 | 12/22 | 19/44 | 44/66 |
| | 비율 | 9 | 18 | 72 | 50 | 86 | 72 | 68 | 45 | 37 | 54 | 43 | 66 |
| | 순위 | 12 | 11 | 2 | 7 | 1 | 2 | 4 | 8 | 10 | 6 | 9 | 5 |
| 계 | 오류 수 | 57/208 | 18/104 | 325/550 | 76/156 | 43/52 | 26/52 | 30/52 | 22/52 | 118/364 | 28/52 | 37/104 | 87/156 |
| | 비율 | 27 | 17 | 59 | 48 | 81 | 50 | 57 | 42 | 32 | 53 | 35 | 55 |
| | 순위 | 11 | 12 | 2 | 7 | 1 | 6 | 3 | 8 | 10 | 5 | 9 | 4 |

빈칸 채우기 부분의 각 문항에 나타난 오류들의 각 항목은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관사, to부정사, 동명사, 접속사, 의문사, 어휘, 어순의 12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알아보았다. 중3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부터 보면 전치사, 동사, 의문사, to 부정사 그 다음으로 어순과 부사 두 항목은 같은 순위, 그 뒤로 동명사, 관사, 어휘, 접속사, 명사 순, 형용사 순이었다. 고1에서는 전치사, 그 다음에 동사와 관사가 같은 순위, to 부정사, 어순, 의문사, 부사, 동명사, 어휘, 접속사, 형용사, 명사 순이었다. 중3, 고1 모두 전치사의 오류가 가장 많았고 동사가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오류를 나타낸 항목은 중3에서는 형용사였고 고1에서는 명사지만 두 개 모두 마지막 11~12위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낮은 오류율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고1에서는 동명사, 동사, 전치사, to부정사, 관사, 소유격, 어휘, 어순, 첨가, 형용사, 의문사, 명사, 부사의 순이었다. 두 집단 모두 동명사와 동사의 오류율이 높았으며 동명사도 동사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상 동사의 오류율이 제일 높다고 볼 수 있겠다.

빈칸 채우기 부분의 두 집단의 오류를 합쳐서 통계를 내서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한 것부터 순위를 매기면 전치사, 동사, to부정사, 어순, 의문사, 관사, 동명사, 어휘, 접속사, 명사, 형용사의 순이었다. 전치사는 우리말에서 잘 쓰이지 않을뿐더러 목표어 안에서도 여러 규칙이 있기 때문에 혼동이 많이 오게 된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동사의 오류의 경우 현재완료시제나 태, 자동사 타동사의 쓰임, 진행형, 가정법, 조동사, 분사 등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가 많았다. 명사와 형용사를 보면 명사는 불가산 명사, 명사의 수일치, 대명사 등을, 형용사는 ‘some’과 ‘any’의 구분, ‘many’와 ‘much’

등의 구분을 평가하였으며 가장 적은 오류율을 나타내었다.

3.3.4. 원인별 오류 분석

<표75> 빈칸문제의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

| 문항 번호 | 품사 | 오류 항목 | 중3 오류수 | 고1 오류수 | 총 오류수 | 오류율 |
|----------|-----|--------------------------|-----------|-----------|----------|-----|
| 2 | 부사 | 부사의 형태 | 25/30 | 18/22 | 43/52 | 82 |
| 4 | 명사 | 불가산명사 | 19/30 | 12/22 | 31/52 | 59 |
| 5 | 형용사 | some과 any구분 | 9/30 | 5/22 | 14/52 | 26 |
| 7 | 명사 | 불가산명사 | 5/30 | 5/22 | 10/52 | 19 |
| 8 | 형용사 | many와 much의 구분 | 5/30 | 5/22 | 10/52 | 19 |
| 9 | 어순 | 어순의 예외 | 9/30 | 12/22 | 21/52 | 40 |
| 10 | 전치사 | 적절한 전치사 | 28/30 | 20/22 | 48/52 | 92 |
| 12 | 접속사 | 적절한 관계사 | 9/30 | 8/22 | 17/52 | 32 |
| 13 | 접속사 | 적절한 관계사 | 29/30 | 22/22 | 51/52 | 98 |
| 14 | 어순 | 어순의 예외 | 23/30 | 21/22 | 44/52 | 84 |
| 15 | 어순 | 간접의문문의 어순 | 26/30 | 17/22 | 43/52 | 82 |
| 16 | 동사 | 현재완료시제 | 27/30 | 22/22 | 49/52 | 94 |
| 18 | 동사 | 태 | 27/30 | 20/22 | 47/52 | 90 |
| 19 | 동사 | 자동사 | 21/30 | 18/22 | 39/52 | 75 |
| 20 | 접속사 | 적절한 관계사 | 14/30 | 14/22 | 28/52 | 53 |
| 21 | 동사 | 진행형, listen과 hear의 구분 | 25/30 | 19/22 | 44/52 | 84 |
| 22 | 부사 | 비교급 강조부사 | 20/30 | 14/22 | 34/52 | 65 |
| 23 | 접속사 | if와 unless의 구분 | 9/30 | 5/22 | 14/52 | 26 |
| 25 | 어휘 | borrow와 lend의 구분 | 12/30 | 10/22 | 22/52 | 42 |
| 26 | 동사 | 시제 | 26/30 | 19/22 | 45/52 | 86 |

| | | | | | | |
|----|-----|---------|-------|-------|-------|----|
| 27 | 동사 | 가정법 | 22/30 | 16/22 | 38/52 | 73 |
| 29 | 동사 | 부정사 | 25/30 | 18/22 | 43/52 | 82 |
| 30 | 동사 | 동명사 | 19/30 | 11/22 | 30/52 | 41 |
| 31 | 접속사 | 등위상관접속사 | 13/30 | 6/22 | 19/52 | 26 |
| 32 | 접속사 | 적절한 관계사 | 25/30 | 19/22 | 44/52 | 84 |
| 33 | 동사 | 태 | 29/30 | 22/22 | 51/52 | 98 |
| 34 | 동사 | 조동사 | 25/30 | 18/22 | 43/52 | 82 |
| 35 | 접속사 | 적절한 접속사 | 20/30 | 14/22 | 34/52 | 65 |
| 36 | 동사 | 분사 | 16/30 | 11/22 | 27/52 | 51 |

위의 표와 같이 빈칸 채우기 문제의 목표어의 규칙 확대로 인한 오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빈칸 채우기 문제 중에서 목표어의 규칙 확대로 인한 오류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총 오류수가 539개 나왔다. 태와 접속사(관계사)에서의 오류율이 98%로 가장 높게 나와 학생들이 목표어 규칙 확대로 인한 오류 중에서는 태와 관계사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사의 경우 현재완료시제, 태, 자동사, 진행형, 시제, 가정법, 부정사, 동명사, 분사 등의 목표어 안에서의 다양한 규칙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치사와 접속사(관계사)의 경우 목표어 안에서 여러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전치사와 접속사를 사용하는데 있어 오류를 범하기 쉽다. 목표어의 일반적인 어순이 아닌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어순부분에서 평가하였는데 여기에서도 목표어의 일반적인 규칙을 확대하여 오류를 많이 범하였다.

<표76> 빈칸문제의 모국어 간섭에 의한 오류

| 문항 번호 | 평가 항목 | 오류항목 | 중3 오류수 | 고1 오류수 | 총 오류수 | 오류율 |
|----------|----------|----------------|-----------|-----------|----------|-----|
| 1 | 어휘 | 관용적 표현 | 18/30 | 11/22 | 29/52 | 55 |
| 3 | 명사 | 명사의 수일치 | 13/30 | 8/22 | 21/52 | 40 |
| 4 | 명사 | 불가산명사 | 19/30 | 12/22 | 31/52 | 59 |
| 6 | 관사 | 관사 | 28/30 | 20/22 | 48/52 | 92 |
| 8 | 형용사 | many와 much의 구분 | 5/30 | 5/22 | 10/52 | 19 |
| 10 | 전치사 | 적절한 전치사 | 28/30 | 20/22 | 48/52 | 92 |
| 11 | 동사 | 타동사 | 21/30 | 17/22 | 38/52 | 73 |
| 17 | 의문사 | 관용적 표현 | 22/30 | 13/22 | 35/52 | 67 |
| 24 | 부사 | yes/no 답변 | 11/30 | 9/22 | 20/52 | 38 |
| 28 | 명사 | 대명사 | 17/30 | 5/22 | 22/52 | 42 |

위의 표와 같이 빈칸 채우기 부분에서의 모국어 간섭에 의한 오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총 오류수는 302개였으며 관사와 전치사에서의 오류율이 92%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우리말에서 관사를 잘 쓰지 않음으로 인해 관사를 생략하는데서 오는 오류로 볼 수 있으며 전치사의 경우도 우리말 번역에는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전치사를 써야 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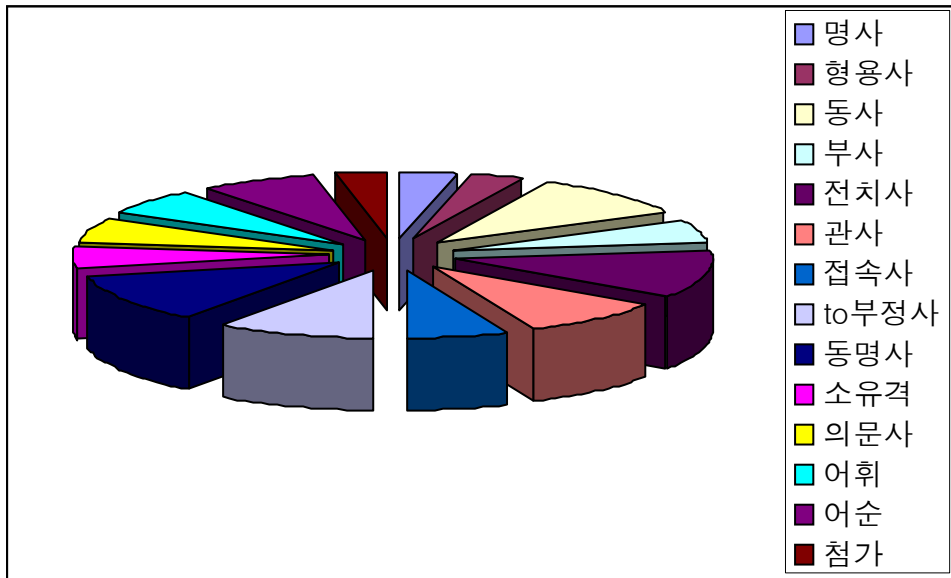
3.4. 오류분석 요약 및 이전 연구와의 비교

3.4.1. 영작문제와 빈칸문제의 문법적 오류분석

<표77> 영작문제와 빈칸문제의 문법적 오류분석

| 평가 항목 | 영작 문항번호 | 빈칸 문항번호 | 영작 오류율 | 빈칸 오류율 | 평균 오류율 | 순위 |
|-------|---|----------------------------------|--------|--------|--------|----|
| 명사 | 모든 문항 | 3,4,7,28 | 9 | 27 | 18 | 12 |
| 형용사 | 5,7,13,14,19,21,26 | 5,8 | 12 | 17 | 16 | 14 |
| 동사 | 모든 문항 | 11,16,17,18,19,21,26,27,33,34,36 | 44 | 59 | 51 | 3 |
| 부사 | 5,6,8,14 | 2,22,24 | 5 | 48 | 28 | 10 |
| 전치사 | 3,5,8,9,11,16,17,23,25 | 10 | 40 | 81 | 60 | 1 |
| 관사 | 4,9,15,16,17,18,23,26,27 | 6 | 39 | 50 | 44 | 5 |
| 접속사 | - | 12,13,20,23,31,32,35 | - | 32 | 32 | 7 |
| 부정사 | 2 | 29 | 42 | 57 | 49 | 4 |
| 동명사 | 12 | 30 | 76 | 42 | 59 | 2 |
| 소유격 | 3,6,16,22,26,28 | - | 27 | - | 27 | 11 |
| 의문사 | 4,14,24 | 17 | 6 | 53 | 29 | 9 |
| 어휘 | 2,9,12,15,23,26 | 1,25 | 28 | 35 | 32 | 7 |
| 어순 | 모든 문항 | 9,14,15 | 15 | 55 | 35 | 6 |
| 첨가 | 2,3,4,6,8,9,11,12,13,14,16,17,18,19,23,24,25,27 | - | 17 | | 17 | 13 |

<그림1> 문법별 평균 오류율 그래프



<표82>와 같이 영작부분과 빈칸 채우기 문제의 오류율을 비교하여 평균 오류율을 내고 순위를 매겼다. 두 유형의 문제를 합해서 통계 낸 결과 오류율이 높은 순서대로 쓰면 전치사, 동명사, 동사, to부정사, 관사, 어순, 어휘와 접속사가 같은 순위, 의문사, 부사, 소유격, 명사, 첨가, 형용사의 순이었으며 영작 문제와 빈칸문제는 문제에서부터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접속사 문제의 경우 빈칸 채우기 부분에서만 측정하였으며 소유격과 첨가 항목은 영작부분에서만 측정하였다.

앞 부분에서 이미 영작부분과 빈칸부분의 문법적 오류 분석을 하였지만 다시 언급하자면 영작 부분에서 가장 많이 오류가 발생한 것부터 순위를 매길 때 동명사, 동사, to부정사, 전치사, 관사, 어휘, 소유격, 첨가, 어순, 형용사, 명사, 의문사, 부사의 순이었다. 동명사와 동사, to부정사의 오류율이 높았으며

명사, 부사, 의문사의 오류율이 낮게 나왔다. 빈칸 채우기 부분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한 것부터 순위를 매기면 전치사, 동사, to부정사, 어순, 의문사, 관사, 동명사, 어휘, 접속사, 명사, 형용사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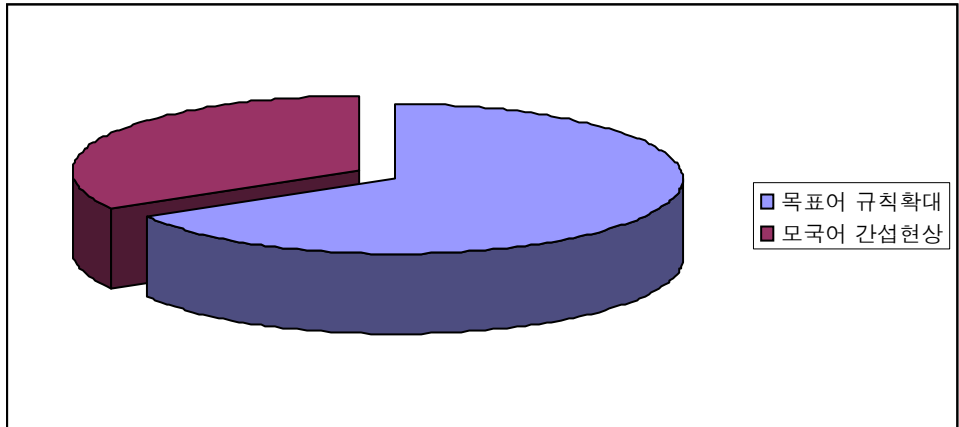
영작문제와 빈칸 채우기 문제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전치사의 오류가 가장 많았고 형용사의 오류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영작문제, 빈칸 채우기, 그리고 이 두 유형의 문제의 통계를 합친 것의 각각의 공통점은 모두 전치사, 동사, to부정사, 관사의 오류율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to부정사도 동사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동사의 오류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앞서서도 설명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명사와 to부정사를 동사와 따로 분류하여 통계를 내었는데 이는 동명사와 to부정사에 대해 학생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평가하기 위함이었다. 가장 오류율이 적은 것은 형용사, 명사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형용사와 명사에 대한 이해는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전치사나 동사, 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4.2. 영작문제와 빈칸문제의 원인별 오류 분석

영작부분에서는 목표어의 규칙 확대로 인한 오류수가 1257개로 67%,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수가 607개로 32%로 목표어의 규칙 확대로 인한 오류율이 높았다. 빈칸 채우기 부분에서는 목표어의 규칙 확대로 인한 오류수가 539개로 64%,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수가 302개로 35%를 차지하여 역시 목표어의 규칙 확대로 인한 오류율이 높았다. 두 유형의 통계를 합한 결과를 보면 목표어의 규칙 확대로 인한 오류수가 1796개로 66%, 모국어의 간섭

으로 인한 오류수가 909개로 33%로 목표어의 규칙 확대로 인한 오류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2> 원인별 오류율



목표어의 규칙 확대로 인한 현상에 관한 두 유형의 오류 분석 결과 동사, 접속사(관계사), 전치사로 인한 오류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서도 설명하였지만 목표어의 다양한 규칙에 대해서 혼동을 하고 있고 어느 한 규칙을 확대하기도 하는데서 비롯되는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모국어의 간섭 현상에 관한 두 유형의 오류 분석 결과 명사, 어순, 관사, 전치사에서 높은 오류율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말에서 잘 쓰지 않는 명사의 복수형, 관사, 전치사로 인한 오류, 우리말과 목표어의 다른 어순으로 인해서 모국어 간섭이 일어나고 있었다.

3.4.3. 이전 연구와의 비교

본 연구에서 두 유형의 문제를 합해서 통계 낸 결과 품사별 오류율이 높은 순서대로 쓰면 전치사, 동명사, 동사, to부정사, 관사, 어순, 어휘와 접속사가 같은 순위, 의문사, 부사, 소유격, 명사, 첨가, 형용사의 순이었다.

6차 교육과정에서의 각 연구의 오류의 순위를 살펴보면 박병제(1996)의 연구에서는 전치사, 동사, 명사, 어순, 시제, 구조, 어휘, 형용사, 대명사, 의미, 관사, 부사의 순이었으며 본 연구와 비교하자면 두 연구 모두 전치사에서 가장 높은 오류율이 나타났으며 동사에서 오류율이 뒤를 이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본 연구에서는 명사의 오류율이 낮은 반면 박병제(1996)의 연구에서는 오류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정진래(1993)의 연구에서는 형태, 관사, 어순, 통사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이 중 형태상의 오류가 가장 많이 나왔으며 그 다음이 관사 상의 오류, 통사적 오류, 어순상의 오류가 차지하였다. 형태상의 오류에는 복수어미의 생략, 부사구의 오류, 본동사의 생략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명사, 부사, 동사의 오류로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동사의 오류는 많았지만 명사나 부사의 오류는 낮은 편이었다. 백왕년(1994)의 연구에서는 준동사, 전치사, 어순, 접속사, yes/no대답, 소유격, 서법, 대명사, 동사, 어휘, 태, 형용사, 명사, 시제, 부사, 현재완료, 관계대명사, 비교, 관사, 수일치의 순이었으며 본 연구와 비교하자면 전치사와 준동사에서 오류율이 높은 것이 일치한다.

6차 교육과정에서의 연구들의 결과와 본 연구를 비교해 본 결과 두 집단 모두 동사의 오류율이 높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명사

와 형용사의 오류율이 낮게 나온 반면 6차 교육과정에서의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지 않았다. 이는 7차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6차 교육과정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동사의 사용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명사나 형용사에 대한 이해는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오류의 원인별 비교를 보면 본 연구에서의 목표어의 규칙 확대로 인한 오류수가 1796개로 66%,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수가 909개로 33%로 목표어의 규칙 확대로 인한 오류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6차 교육과정에서의 연구들의 결과와 본 연구를 비교해 본 결과 모두 목표어로 인한 오류율이 모국어로 인한 오류율보다 높게 나왔다. 이는 6차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7차 교육과정에서의 학생들도 모국어의 간섭보다는 목표어의 규칙 확대로 인해 영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작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분석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고 아울러 6차 교육과정에서의 연구들과 비교하였다. 학생들에게 우리말로 제시된 번역을 보고 문장 전체를 영어로 옮기는 영작문제와 문법항목별로 구분된 빈칸을 채우는 문제를 풀게 하여 각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영작문제와 빈칸 채우기 문제를 통합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

문법적 오류 분석을 위하여 영작 문제 부분의 각 문항에 나타난 오류들을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관사, to부정사, 동명사, 소유격, 의문사, 어휘, 어순, 첨가의 13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분석하였으며 영작 부분에서 두 집단의 오류를 합쳤을 때 가장 많이 오류가 발생한 것부터 보면, 동명사, 동사, to부정사, 전치사, 관사, 어휘, 소유격, 첨가, 어순, 형용사, 명사, 의문사, 부사의 순으로 동명사와 동사, to부정사의 오류율이 높았으며 명사, 의문사, 부사의 오류율은 낮게 나왔다.

또한 빈칸 채우기 부분의 각 문항에 나타난 오류들을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관사, to부정사, 동명사, 접속사, 의문사, 어휘, 어순의 12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 전치사, 동사, to부정사, 어순, 의문사, 관사, 동명사, 어휘, 접속사, 명사, 형용사의 순서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중3과 고1의 두 유형의 문법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치사가 가장 높은 오류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동명사, 동사, to부정

사, 관사, 어순, 어휘와 접속사, 의문사, 부사, 소유격, 명사, 첨가, 형용사의 순으로 전치사와 동사류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고 명사와 형용사 등은 낮은 편에 속했다.

또한 오류의 원인별 분석을 위해 언어내 오류(목표어의 규칙확대)와 언어간 오류(모국어의 간섭)로 구분하여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영작부분에서는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수가 1257개(67%),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수가 607개(32%)로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율이 높게 나타났다. 빈칸 채우기 부분에서도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수가 539개(64%),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수가 302개(35%)를 차지하여 역시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율이 높았다. 두 유형을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수가 1796개(66%),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수가 909개(33%)로 목표어의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6차 교육과정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를 비교해 본 결과, 문법적인 면에서 모두 동사의 오류율이 높다는 점에서 일치하나 본 연구에서 명사와 형용사의 오류율이 낮게 나온 반면 6차 교육과정에서의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지 않았다. 원인별로 보았을 때, 6차 교육과정의 연구결과와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모두 목표어로 인한 오류율이 모국어로 인한 오류율보다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 보았을 때,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배우면서 오류를 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학생들이 정확한 문법 사용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교사는 이러한 학습자의 오류에 대해 긍정적

인 시각을 갖고 학생들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생들의 실태조사 2번 문항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영어 문법이 필요하다고 중3의 70%, 고1의 59%가 답변한 것으로 보아 영어문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태조사 3번 문항의 영어를 배우는 데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에 대한 설문 결과 중3의 53%, 고1의 45%가 모두 중요하다고 답변하여 4가지 영역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언어의 의사소통 기능도 중요하지만 문법과 쓰기 수업 또한 실제 수업에서는 필요한 요소임을 인지하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4가지 기능이 균형 있게 발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참고문헌

[영어 교과서]

김충배, 최인철, 김준광, 이석. (2002). High school English Teacher's Guide.

서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임병빈, 강용구, 연준, 유철, 송해성. (2002). High School English Teacher's

Guide. 서울: 장원교육

배두분, 박성수, 김정렬, 김준식, 이동주, Carl Dusthimer. (2003). Middle

School English 3 Teacher's Guide. 서울: 교학사

강홍립, 이한묵, 최동석, 허창도. (2003). Middle school English 3 Teacher's

Guide. 서울: 대한교과서

김용진, 홍완기, 강용순, 김지탁, 정사열, 양미라, 강윤희, Daniel H Lee.

(2003). Middle school English 3 Teacher's Guide. 서울: 디딤돌

이병민, 박기화, 한정근, 정정혜, Stephen P. Van Vlack. (2003). Middle school

English 3 Teacher's Guide. 서울: 천재교육

이병건, 강대철, 한유택. (2002). Middle school English 2 Teacher's Guide. 서

울: 대일도서

김성곤, 송미정, 윤정미, 김영, 윤미정. (2002). Middle school English 2

Teacher's Guide. 서울: 두산

장경렬, 안상철, 강규한, 송원섭. (2002). Middle school English 2 Teacher's

Guide. 서울: 금성

고진숙. (1994). 중·고등학생의 영작문 오류 비교. 연세대 교육대학원.

- 김미정. (2001). 오류분석을 통한 영어 쓰기 지도.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문용. (2002). 고급영문법해설. 서울: 박영사.
- 박병제. (1996). 오류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영작문 지도방법 고찰.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백왕연. (1994).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작문상의 오류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원. (2000). 영어교육학. 서울: 인하대학교 출판부.
- 박현수. (2005). 빌드업 영어교육론. 서울: 박문각.
- 박현주. (2003). 오류분석을 통한 수준별 영작문 비교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 배두분. (2002). 영어교육학 총론. 서울: 한신문화사.
- 이계순. (1977). 오류분석과 대조 분석의 방향과 그 적용, 응용언어학 제9권 제1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이미희. (2005). 오류분석을 통한 영어 쓰기 활용방안.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재홍. (2005).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작문 오류 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주연. (2002). 중학교 학생의 영어작문을 통한 오류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은수. (2005). 한국 고등학생들의 영어문법 오류 분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신재. (1996). 영어를 어떻게 배우고 가르칠 것인가. 서울: 신아사.
- 장재진 (2001). 맨투맨 기본영어 1. 서울: 맨투맨 영어교육.
_____ 맨투맨 기본영어 2. 서울: 맨투맨 영어교육.
- 정양수, 김영은. (2005). 영어 교수 학습의 원리. 서울: 한신문화사.
- 정진래. (1993). 영작문 오류 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Brown, H. D.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4th ed), White Plains, NY: Addison Wesley Longman, Inc.
- Bourke, K. (2003). *Test It Fix It English Verbs and Tenses*: Oxford University Press.
- Cele-Muricia, M. (2001). *The Grammar Book*: Heinle & Heinle Publisher.
- Corder, S. P. (1967) The significance of learner's errors. *IRAL* 5(4). 161-170.
- Flemming, L. (2006) *Reading for Thinking*(5th ed); Houghton Mifflin.
- Flemming, L. & Leet J. (1993) *Becoming a Successful Student*(2nd ed): Harpercollins College Div.
- Fries, C. C. (1945).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Hewings, M. (2005). *Advanced Grammar in Use*(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osofsky, D. (1995). *Common problems in Korean English*, Seoul: 외국어연수사.
- Lado, R. (1957). *Linguistics across cultur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asen, F. D. and Long, M. (1991). *An introduction to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esearch*. New York: Longman.
- Littlewood, W. (1984). *Foreign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Cambridge University.
- Murphy, R. (2002). *Basic grammar in use*(2nd ed): Cambridge University.
- _____ (2000). *Grammar in use intermediate* (2nd ed): Cambridge

University.

Quirk, R. (1990). *A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gman.

Richards, J. (1974). *A Non-contrastive Approach to Error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An Analysis of Learner's Errors in English Composition

Seo Ko Eun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major errors in the process of English composition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high school students. For this study, 30 students in their third grade of middle school and 22 students in their first grade of high school were selected. The students were required to translate Korean sentences into English.

This study consists of four chapters. Chapter one presents the necessity, purpose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Chapter two shows background of Contrastive Analysis and Error Analysis. Chapter three introduces the methodological aspects of this study and the results of error analysis.

Learner's error were classified into grammatical categories such as verbs, adjectives, adverbs, nouns, prepositions, word-order. The sources of errors were analyzed in terms of interlingual errors and intralingual errors. This study indicates that intralingual errors were greater than interlingual ones. And students in the 7th curriculum and students in the 6th curriculum are also the subjects of this chapter. Chapter four summarizes the result of the study and presents recommendations for more effective methods of English language education,

The results of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ost errors which students made were the prepositions and the lowest was the error in adjectives. It means that they don't understand clearly about prepositions which are not used in Korean. Second, the percentage of errors caused by intralingual transfer was 66%, and caused by interlingual transfer was 33%. Third, the rates of adjective and noun errors were lower in the group of the 7th curriculum students than in the 6th curriculum students. The students made a lot of errors in using verbs in both groups. The students made more intralingual errors caused by specific properties and its overgeneralization of the target language than interlingual errors caused by interference of their native language in both group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we need to concern about accuracy as well as proficiency to develop student's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teach language forms and grammar to

reduce the errors in English composition. Teachers should have a positive perspective toward learner's errors, and accept their errors as a natural phenomenon important to the process of learning a second language. Also let students recognize that their errors are natural phenomenon.

부 록

<학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영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본 문제지는 여러분이 영어 문법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영어 실력 향상을 돕고자 하는 것이니 끝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답변하여 주신 내용은 소중하게 다루어 유용한 연구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서 익명으로 다루어지며 본 연구에만 사용됩니다. 또한 귀하가 적어주신 귀중한 내용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이며 귀하의 신원을 밝히는 어떠한 질문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작성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학년인지 동그라미로 표시해주세요.(중학생, 고등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성별을 동그라미로 표시해주세요. (여성, 남성)

1. 영어교육을 언제부터 받으셨습니까?

- 1) 1세~4세 2) 5세~7세 3) 초등학교1학년~3학년
4) 초등학교 4학년~6학년 5)중학교

2. 영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영어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하다 3) 필요 없다 4) 전혀 필요 없다

3.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듣기 2) 말하기 3) 읽기 4) 쓰기 5)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모두

◆ 다음의 문장을 영어로 옮겨주세요.

(옆에 힌트가 있는 문제도 있으며 단, 문제 답과 완전히 똑같지 않을 수 있음)

1. 그는 야구(baseball)를 좋아해(like).

2. 나는 내년 여름에 하와이(Hawaii)를 방문하길(visit) 희망해(hope).
3. 나는 내일까지(tomorrow) 내 리포트(report)를 끝마쳐야 해(finish).
4. 우체국이 어디인가요? (post office)
5. 그는 항상(always) 학교에(school) 늦게 온다.
6. 난 내 자전거를(bike) 어제(yesterday) 잃어버렸어(lose).
7. 김씨는(Mr.Kim) 남자형제가(brother) 2명이 있어(have).
8. 그는 매일(everyday) 학교로(school) 가(go).
9. 우리는 지난주에 그 파티에(party) 초대되지(invite) 않았다.
10. 그녀는 사과를(apple) 좋아하니(like)?
11. 너는 프랑스에(France)가본 적 있니?
12. Tom은 지난 일요일(Sunday)에 수영하러(swim) 갔어.
13. 그는 행복해(happy) 보인다(look).
14. 어제(yesterday) 햄버거(hamburger)를 얼마나 많이 먹었니(eat)?
15. 내가 비닐봉지 가질(have) 수 있겠니(can)?
16. 그의 어머니는(mother) 부엌에(kitchen) 있다.
17. 그것은(it) 책상(desk) 위에 있다.
18. 그는 노래를(song) 불렀다(sing).

19. 우리는 또 다른 의자가(chair) 필요하다(need).
20. 나는 고양이(cat)를 좋아하지(like) 않아.
21. 그는 나에게 저(that) 연필을(pencil) 주었다(give).
22. 나 머리(hair) 잘랐어(cut).
23. 나는 저번 일요일(Sunday)에 공원(park)에서 그녀를 보았어(see).
24. 누가(who) 그렇게(that) 말했어(say)?
25. 우리는 한국에(Korea) 있는 인천(Incheon)공항에(airport) 도착했어(arrive).
26. 우리 엄마(mother)는 훌륭한(good) 요리사이다.
27. 그는 방안으로(room) 들어갔다(enter).
28. 손(hand) 닦아라(wash).

◆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주세요. (옆에 힌트가 있는 문제도 있음)

1. Tom은 어젯밤 어떤 남자에게 돈을 빼앗겼다.
Tom was robbed by a man () night.
2. 잔잔한 강은 물이 깊게 흐른다. (deep, deeply 중에 선택)
Still waters run ().
3. 약 2주가 걸립니다. (week)
It takes about 2 ().

16. 그는 이곳으로 이사 온 이후 영어를 가르쳐왔다.(teach)
He () English since he moved here.
17.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do you think of this?
18. 이 펜은 잘 써진다. (write)
This pen () well.
19. 그녀는 공원에서 우연히 그를 만났다. (happen)
It () that she met him in the park.
20. 너는 내가 의미하는 바를 알겠니?
Do you know () I mean?
21. 나는 노래하는 새들의 소리를 듣는 중이었다. (listen과 hear중에 선택)
I was () to the singing birds.
22. 나의 오빠(형)은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다.
My brother is () older than me.
23. 우리가 지금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게 될 거야. (if나 unless중에 선택)
() we don't leave now, we'll be late.
24. 너는 거기에 가지 않았지, 그렇지? 아니, 갔었어. (yes나 no중에 선택)
You didn't go there, did you? (), I did.
25. 내가 너의 자전거를 빌릴 수 있을까? (borrow 나 lend중에 선택)
Can I () your bicycle?
26. 우리들은 내일 비가 온다면 농장에 가지 않을 거야. (rain)
We will not go to the farm if it () tomorrow.

27. 만일 내가 백만장자라면(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사지 않겠다.
If I () a millionaire, I would not buy it.
28.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요.
Come and sit by ().
29. 유감스럽게도, 그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say)
I regret () that he didn't pass the examination.
30. 그는 소설 읽는 것을 즐긴다. (read)
He enjoys () a novel.
31. 그와 그의 동생 둘 다 아직 살아 있다.
Both he () his brother are still alive.
32. 이것은 내가 문제를 풀었던 방법이다.
This is () I solved the problem.
33. 사람들은 게임이 시작되었을 때 흥분되었다. (excite)
People () when the game started.
34. 그는 늘 일찍 일어나곤 했다. (used to)
He () up early.
35. 그가 부자라는 것은 사실이다.
It is true () he is rich.
36. 나는 그의 연설을 듣고 지루해졌다. (boring과 bored 중에 선택)
I was () to hear his speech.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